

청년생활

8
1962



2억 5천만 메터 직물 고지 점령에서 1등품의 비중을 높이기 위하여 투쟁하고 있는 평양 견방직 공장 준비 직장 한 경선 천리마 청년 작업반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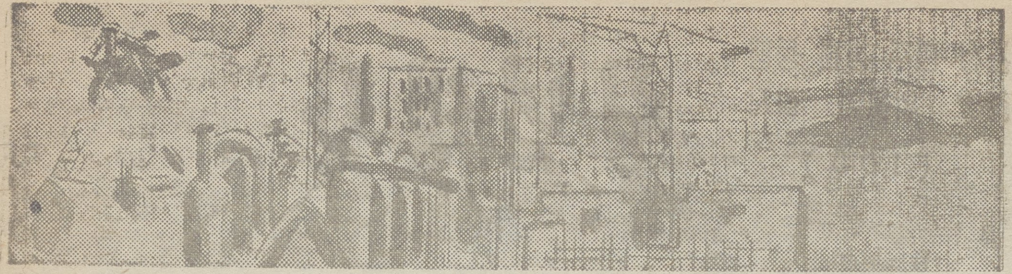
촬영 리 종록

조선 민주 청년 동맹
중앙 위원회 잡지
(155)

청년생활



8
1962



차 례 1962. 8



표지 1면……청춘을 노래 한다

우리의 사회주의 제도를 철옹성 같이 고수하며 더욱 공고 발전시키자

•

오늘 우리 나라 청년들은 다가 오는 최고 인민 회의 대의원 선거를 높은 정치적 열의와 로력적 성과로 맞기 위한 투쟁으로 들끓고 있다.

금번 진행되는 최고 인민 회의 대의원 선거는 사회주의가 전면적으로 승리한 조건 하에서 처음으로 실시되는 최고 주권 기관 선거로서 우리의 사회주의 제도와 인민 주권을 더욱 공고 발전시킴에 있어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력사적 사변으로 된다.

우리 인민은 금번 선거를 통하여 자기들의 손으로 창건하였고 피로써 고수한 인민 정권을 더욱 굳게 다지며 공화국 북반부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더욱 강화함으로써 반미 구국 투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영웅적으로 싸우는 남반부 동포들을 힘차게 고무하며 조선 인민의 최대의 민족적 숙망인 조국 통일을 더욱 촉진시키게 될 것이다.

나아가서 이번 선거는 사회주의 진영의 동방 초소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조선 인민의 불패의 통일 단결과 위력을 남김 없이 시위함으로써 제국주의 세력에 또 하나의 커다란 타격으로 될 것이다.

제 2 기 최고 인민 회의 선거가 진행된 때로부터 5 년…이 5 년이란 기간은 수천 년의 우리 조국 력사에서 극히 짧은 기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 기간은 우리 인민이 우리 당의 세련된 령도하에 세기적인 변혁을 이룩한 력사적 변혁의 시기였다.

우리 나라에서 착취와 빈궁의 근원은 영원히 청산되였으며 모든 사람들이 자유와 행복을 누리는 사회주의 사회가 확고하게 수립되였다.

우리 조국은 강력한 중공업, 경공업 기지와 문명한 사회주의 농촌을 가진 사회주의 공업—농업 국가로 전변되였으며 천리마는 이 땅 우에 힘차게 달리고 있다. 실로 수천 년의 조선 력사에서 오늘처럼 우리 조국이 번영하고 행복과 자유를 누리며 살게 된 그러한 시기는 일찌기 없었다.

오늘 사회주의 제도의 품속에 안긴 우리 청년들의 생활 또한 무한히 행복하다.

일제 시대에 억압 받고 착취 받던 로동자, 농민의 아들딸들이 오늘은 온갖 정치적 권리와 자유를 향유하고 있다. 오늘 우리 나라 각급 주권 기관에는 1만 7천여 명의 청년들이 선거 받고 사업하고 있으며 또한 많은 청년들이 당, 정권 기관, 사회 단체, 교육 문화, 보건 기관들에서 중요한 간부로 일하고 있다. 우리 청년들에게는 진정한 로동의 권리와 휴식의 권리가 보장되여 있으며 동방에서 처음으로 중등 의무 교육제의 종 소리가 높이 울리고 각급 학교망이 급속히 확장되고 일하면서 배울 수 있는 공장 대학이 창설됨으로써 청년들 앞에는 누구에게나 다 같이 마음껏 배울 수 있는 광활한 길이 열리였다.

또한 우리에게는 현재도 좋지만 보다 휘황한 미래가 약속되여 있다.

김 일성 동지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는 1964년에 가서 3억 메터의 천을 짜고 300만 톤의 벼와 20만 톤의 고기를 생산하며 30만 동의 농촌 문화 주택을 건설하게 될 것인바 이렇게 되면 우리 인민이 오래'동안 갈망하던 념원 즉 이밥에 고기 국을 먹고, 비단 옷을 입고 사는 생활이 현실로 된다.

우리는 절실한 체험을 통하여 인민의 운명에 있어서 자기의 조국, 자기의 주권보다 더 고귀한 것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우리는 지난 날 자기 조국과 주권이 없었기에 제땅에 살면서도 일제의 온갖 민족적 수모와 억압과 착취를 받았으며 오늘은 남조선 인민들이 미제의 야수적인 폭압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것이다.

1930년 대로부터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한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은 이 땅우에 행복하고 자유로운 사회주의 제도를 세우기 위하여, 우리 인민의 주권을 위하여 피흘리며 싸웠다. 실로 오늘 우리의 행복은 우리의 혁명 선렬들이 흘린 고귀한 피의 대'가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기에 조국 해방 전쟁 시기 조선 인민들과 청년들은 원쑤들의 침해로부터 우리의 주권, 귀중한 사회주의 전취물을 수호하기 위하여 목숨 바쳐 싸웠다.

혁명 선렬들의 피로써 얻어진 우리의 주권, 우리 인민이 피로써 지킨 우리의 조국, 우리의 사회 제도를 철옹성 같이 고수하며 그를 공고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에 자기의 모든 정력과 재능을 바치는 것은 우리 청년들의 가장 영예로운 사명으로 된다.

때문에 우리는 금번 실시되는 최고 인민 회의 대의원 선거에 고도의 열성을 가지고 한 사람도 빠짐 없이 참가함으로써 우리 제도, 우리 주권을 더욱 반석 같이 다져야 한다.

동시에 청년들은 피로써 쟁취한 사회주의 전취물을 철옹성 같이 보위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며 항상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에 준비되여 있어야 한다.

청년들은 최고 인민 회의 대의원 선거를 6 개 고지 점령을 위한 거세찬 로력 투쟁으로 맞이하기 위하여 모든 힘을 경주하여야 한다.

우리는 지금 6 개 고지의 최정점을 점령하기 위한 최후 결전에 나섰다.

청년들은 인민 경제 모든 부문에서 어렵고 긴요한 모퉁이를 담당 수행하며 새 기준량 창조의 앞장에 서며 자기에게 부과된 계획 과제를 일별, 월별, 분기별, 지표별로 어김 없이 완수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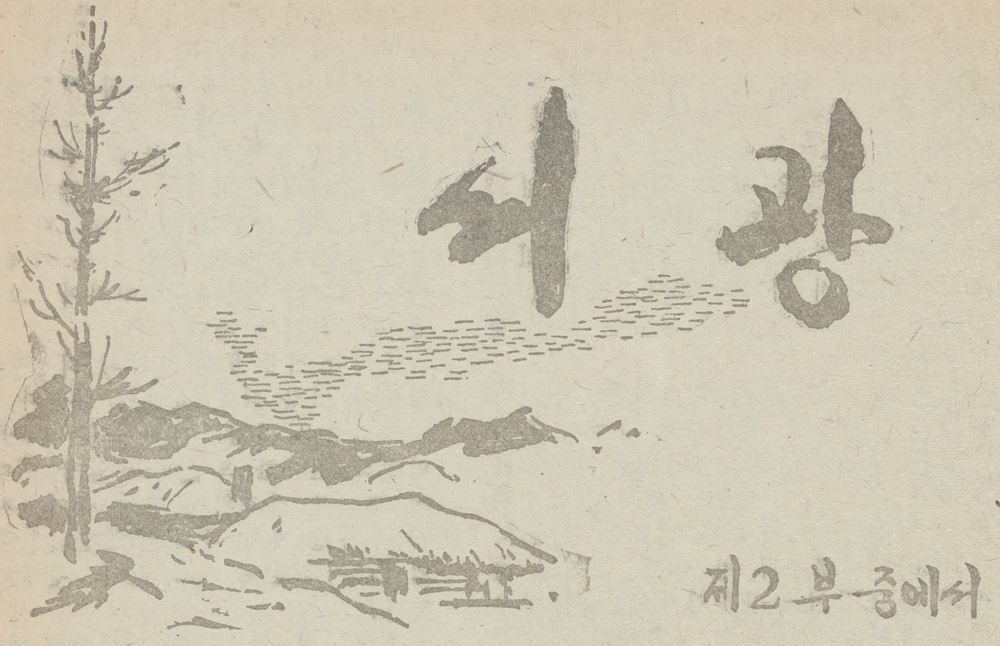
보수주의, 소극성을 반대하고 창의 고안, 발명, 합리화 등 기술 혁신의 불'길을 높이 추켜 들며 절약 투쟁을 백방으로 강화하고, 있는 설비, 있는 로력으로 더 많이 생산하여야 한다.

청년들은 6 개 고지 점령에서 영예로운 승리자가 됨으로써 이 나라 청춘의 기백을 다시 한 번 온 세상에 떨치자!

전체 민청원들과 청년들은 조선 로동당의 후비대이며 방조자라는 영예와 긍지를 간직하고 지난 날에도 언제나 그러하였던 것처럼 금번 최고 인민 회의 대의원 선거에서도 높은 정치적 및 로력적 열성을 발휘함으로써 당과 혁명에 대한 충실성을 다시 한 번 표시하자!

통일되고 단결된 조선 인민과 청년들의 위력을 남김 없이 전 세계에 시위하자!





박 달

(전호에서 계속) 2

1939년 3월 9일 놈들은 만 6 개월만에 성호를 비롯한 그의 전우들 백 여 명을 함흥 형무소로 이송했다.

성호는 함흥 형무소 미결감 제 5 사 1 호실 독방에 감금되였다. 성호는 경찰에서의 고문으로 하여 몸이 극도로 쇠약했다. 그러나 놈들은 성호에게 엄격한 감옥내 규률을 강요했다. 몸이 불편해도 누울 수 없으며 좀 서서 움직여 보는 것까지도 금지되여 있었다. 그저 하루 종일 앉아 있어야만 하였다. 성호가 들어 있는 5 사 1 호실 독감방은 길이가 한 서너 메터 되고 너비가 한 두어 메터 되는 약간 장방형인 그야말로 궤짝 속 같은 방이였다. 방은 모두 흰 빛으로 발리웠고 밖은 벽돌로 쌓은 2 층 집이여서 천정도 높았다. 뒤로는 창문이 하나 있는데 창문에는 굵은 쇠창'살이 박혀 있었다. 앞에는 두꺼운 널문이 무거웁게 닫겨 있는데 그 널문 아래에는 사발이 하나 드나들 만한 구멍 셋이 있고 다시 검은 빛 철판문으로 여닫게 되여 있었다. 또 문 웃부분에는 한 두어치 되는 너비로 한 뼘쯤 되게 가로 째고 밖으로 구리'빛 쇠로 막아 버렸는데 이 구멍은 언제 오는지 모르게 간수놈이 쇠딱지를 가만히 열고 안을 감시하는 구멍이다. 방'바닥은 마루인데 한 쪽에는 한 사람의 하루의 대변과 소변을 받을 수 있는 변기통이 놓여 있었다. 류치장 안에도 이런 변기통은 있지만 그것보다는 좀 작고 반들반들 했다. 변기통 우 문 옆으로 구멍이 하나 있는데 이 구멍을 손'가락으로 누르면 속에 있는 나무가 밖으로 밀려 나가며 밖에 장치한 나무가 벌렁 떨어진다. 이것을 놈들은 효—시끼(表示器)라고 했는데 조선인 수감자들은 모두 패통이라고 불렀다. 이 패통은 안에 있는 사람이 간수나 소제부에 필요가 있을 때 눌러 두면 긴 복도를 순찰하던 간수가 그 방으로 패통을 도루 꽂으며 감시 구멍을 열고 무엇이냐고 묻는다. 그러면 방안 사람은 자기가 요구하는 말을 하게 된다.

이러한 모든 장치들은 혜산 류치장보다 많이 달랐다. 그러나 성호는 처음 이 방에 들어서자 숨이 막히는듯 하였다. 방이 너무도 좁아서 마치도 몸뎅이가 방 속에 끼여 있는듯 답답하고 부자유스러웠다. 일제 놈들은 조선의 애국자들을 감금하기 위하여 이런 독감방을 여러 개 만들어 놓았다. 이 5사만 하더라도 복도를 중심해 량 쪽으로 수십 개의 감방이 달려 있는데 그 중에는 여러 사람을 감금할 수 있는 큰 방도 있지만 이런 궤 속 같은 독방이 절대 많았다. 성호는 이런 방에 습관이 안 되였기 때문에 처음에는 여러 사람이 같이 있을 수 있는 경찰서 류치장이 얼마나 더 자유로웠던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놈들은 이런 방에 애국자들을 넣어 더욱 심한 고통을 느끼게 하였다.

성호가 들어 있는 1 호 독방 옆에 붙은 2 호 독방에는 리 용운이가 있었고 그 다음 3 호 독방에는 김 철주 가 있었다.

성호는 함흥 형무소로 오기 전부터 제 1 차에 송국된 권 백, 리 동순, 김 시욱 등 여러 동지들의 소식이 궁금해 견딜 수가 없었다. 형무소에 들어만 가면 이내 소식을 알 수 있을 것 같아 함흥 형무소로 오는 것이 한편 반가운 생각까지 들었다. 그러나 이런 방에 감금되여 외계와 완전히 두절돼 있으니 지척이 천 리인듯 더 답답하였다. 우선 사람이 그리웠고 말벗이 그리웠다.

식사 때가 되면 복도가 소란해지며 소제부가 매 감방마다 밥을 나누어 준다. 성호는 언제나 그 시간이 기다려진다. 배가 고파서가 아니다. 소제부의 얼굴을 볼 수 있으며 그와 단 한 두 마디라도 말을 나눌 수 있기 때문이다. 문에 달린 검은 철판이 활짝 열린다.

《밥 받으시요.》

얼굴이 둥그스럼하고 눈이 선량해 보이는 이 소제부는 무슨 죄명을 가지고 징역을 사는지 모르지만 약간 붉으스럼한 얼굴에 땀을 흘리며 밥팡과 국통을 들고 바삐 돌아 간다. 형무소 안에서는 칼을 찬 간수 이외에는 모두 징역을 사는 사람들을 잡부로 쓴다. 청소부, 리발사, 취사원에 이르기까지 모두 징역하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런데 배치되는 징역군은 모두 경제범이며 비교적 형기가 짧고 저의놈들 눈에 이 사람은 나쁜 짓을 않고 충실히 일을 보아 줄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만이 선발되는 것이다.

성호는 얼른 밥 구멍으로 나앉으며 식기를 내준다.

《수고하십니다.》

성호가 이렇게 말을 걸면 소제부는 자기에게 인사를 해 주는 것이 반가워

《우리야 수고가 무엇 있습니까. 선생님들이 수고를 하시지요》.

하고 속삭이듯 대'구를 한다. 성호는 소제부가 마음에 들었다.

형무소 식사는 밥과 국인데 국은 아침 저녁에만 주고 점심 식사 때는 김치가 아니면 사라지 무친 것, 간혹 가다가 북어 조림 한 토막을 놓아 들여 준다. 밥은 콩이 50 프로, 만주 좁쌀이 40 프로, 입쌀이 10 프로인데 밥을 해서는 쇠통으로 다식처럼 찍어서 준다. 밥은 분량에 따라 우에 1 자부터 8 자까지 글'자가 찍힌다. 그런데 미결감 수감자들에게는 제일 적은 8 등밥을 준다. 성호는 건강이 나빠 이 밥도 겨우 먹을 정도이지만 보통 수감자들은 8 등 밥을 먹고는 배가 고파 쩔쩔 맨다. 밥을 다 먹고 있으면 소제부가 다시 와서 식기를 가시여 준다. 성호는 식기를 내주고 받아 들이고 하는 동안 소제부와 간단한 담화를 할 수 있었다. 성호는 이 시간이 하루 생활에서 제일 즐거운 시간이였다.

《덕분에 잘 먹었습니다.》

성호가 공손히 이렇게 말을 하면 소제부는 황송한듯

《원 천만에 말씀입니다. 제 덕이랄 게 있나요.》 한다. 성호는 이렇게 해서 소제부와 친해졌다.

함흥 형무소 안에는 두 차례에 걸친 검거로 인한 전우들 수백 명이 미결감에 억류되고 있었다. 성호는 이미 1 차에 송국된 리 동순, 권 백, 김 시욱 동지들이 몇 동 몇 호실에 있다는 것을 알아 볼 수도 없었고 만나 볼 수도 없었다.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 있는 일반 방이여서 통방으로 다른 동무들과 련락을 취하는 길조차 막혀 있었다. 문에 달린 감시 구멍으로는 올빼미 눈깔 같은 간수놈의 눈깔이 수시로 번뜩였다. 하루에 한 번씩 한 15 분 동안 밖으로 내다가 운동을 시키는데 감방을 나서기가 무섭게 용수를 씌워 밖으로 나가도 아무도 알아 볼 수 없었다.

성호는 소제부를 통해 이것 저것 물어 보고 동무들에게 말도 전달할 수 있게 되자 우선 먼저 안부를 전했다. 그리고는 서로 통방을 할 데 대한 조직을 하였다. 소제부를 알아 보니 울종 상업 학교까지 나온 젊은이인데 성진

어느 일본놈 회사에 다니다가 돈을 좀 축낸 것이 탄로되여 횡령 죄로 징역 2년을 받고 사는 사람이였다. 한 일년만 더 고생을 하면 나간다는 것이다. 돈을 축낸 것도 부화 방탕이 아니라 자기 삼촌(부모는 없는 사람이였다.)집이 가난해 벌어 먹으라고 우차 한 바리를 사 주노라고 돈을 좀 꺼내 썼는데 마침 검열에 걸려 횡령 죄를 뒤집어 썼다는 것이다.

성호는 이 말을 듣고 무척 그 젊은이에게 동정이 갔다. 생각하면 마음이 가륵하고 훌륭한



젊은이였다. 성호는 그 다음부터 소제부를 《소제부 동무》라고 불렀다. 소제부는 사상범으로 들어 온 동무들이 서로 동무라고 부르는 것을 듣고 있었다. 소제부는 사상범들을 존경했으며 부러워 했다. 이왕 징역을 살려면 사상범으로 살아야지 자기 같이 횡령죄로 들어 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다. 소제부는 처음부터 미결감으로 배치되여 한 일년 소제부로 있었기 때문에 감삭 사건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밖에 붙어 있는 명패를 보고 이 분이 바로 김 성호 선생이라는 것을 이내 알았다. 그래 그는 처음부터 성호를 선생이라고 불렀다.

소제부의 역할로 통방이 해결되였다. 그리고 또 그의 활동으로 권 백, 리 동순, 김 시욱 등 동무들이 어느 감방에 있다는 것도 알아내였다. 성호는 무척 반가웠다. 그런데 마침이 동무들은 다른 채 미결감에 있어 통방(암호로 글'자 수를 벽에 때리여 말을 하는 법과 뒤창문으로 밖에 파수 보는 놈이 없을 때 말로 전하는 방법)을 할 수 없지만 짧은 말은 이 소제부 동무를 통해 줄 수 있었다.

성호는 매 동무들의 건강을 먼저 알아 냈다. 대부분 동무들은 경찰서에서 그렇게 고문을 당했지만 강한 의지로 건강을 유지하고 있었다. 김 시욱이도, 리 동순이도, 권 백이도, 리 창실이도 다 무사히 있었다. 성호는 자기 일처럼 반가웠다. 그러나 그 중 몇 동무는 고문 당한 어혈로 중태에 빠져 있으며 몇 동무는 이미 옥중에서 사망을 하였다. 성호는 이미 사망한 동무들에 대한 생각으로 가슴이 아파 몇 번이고 혼자 추도를 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계속 완강한 투지로 승리의 신심을 가지고 씩씩하게 놈들의 박해를 이겨 나가자고 매일 같이 통방을 통해 혹은 소제부를 통해 매 방마다 전하여 동지들을 고무하였다. 동순이, 권 백이, 시욱에게서도 자주 격려의 소식이 왔다. 이 동지들과 서로 통하게 되니 성호는 조금도 고적하지 않았다. 새 희망이 솟구치는 것만 같고 기운이 났다. 성호는 더욱 자신을 갖고 격려의 회답을 보냈다.

《동무들, 기운을 내서요. 놈들은 우리를 감

옥에 가두었지만 머지 않아 우리들은 자유의 몸이 될게요. 일제는 패망하고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지금 김 일성 장군은 더욱 맹렬하게 일제를 무찌르고 계십니다. 이 시각에도 그 분이 령솔한 조선인민 혁명군은 동북 어느 지역에서 일만 군대를 포위하고 섬멸 중에 계실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가 온다는 것을 잊지 말고 희망에 넘치는 마음으로 이겨 냅시다.》

성호가 매일 같이 동무들을 격려하고 고무하는 내용은 이런 말이였다. 아직도 미성년인 조연이도 끝끝내 고문을 이겨 내고 성호와 같이 형무소로 왔다. 조연은 리 필선과 같이 여러 사람이 들어 있는 방에 있었다. 조연은 성호의 말이 전달될 때마다 감격으로 눈물이 글썽했다.

《필선 동지, 김 선생님 말씀이 옳아요. 우리는 꼭 승리할 게여요. 일본놈들이 조선 사람에게 그렇게 못 되게 굴고 어떻게 오래 견디여 배길 수 있어요. 김 일성 장군님은 국내에 또 들어 오실게여요. 그래 우리의 감옥 문을 열어 주실 게여요. 필선 동지는 어떻게 생각하서요.》

필선이가 대답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자신이 있어. 놈들은 지금 우리를 이렇게 강금하고 있지만 망할 날은 머지 않았어. ‥》

두 사람은 감시의 눈을 주의하며 이렇게 말을 주고 받고 하였다.

형무소 미결감은 사상범이나 잡범이나 할 것 없이 하루 종일 앉아 있어야 했다. 감옥 수감자들을 《위해》 놈들이 발간하는 《히도》 (사람이란 말)라는 신문과 《미찌》 (길)라는 잡지 형식의 얇은 책이 이따금 한 번씩 들어와 그거나 몇 시간 들여다 보면 할 일이 없다. 성호는 그것들이 들어 오면 부지런히 뒤지며 읽었다. 그것은 그 속에 소식란이 있는데 거기에는 놈들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소식들만을 발표한다. 성호는 그것을 통해 바깥 소식을 짐작했고 국제 동향도 극히 제한된 범위나마 알 수 있었다. 그런데 그 신문과 잡지도 부수가 적어 한 방에 한 시간 이상 머물러 있지 못하게 했다. 간수가 와서 받아 가지고는 다음 방으로 넘긴다.

성호는 하루 종일 앉아 있었다. 예심으로 회부된 뒤로는 심문이라는 것은 거의나 없다. 놈들은 경찰서에서 고문으로 만들어 낸 조서에 근거해서 예심을 하는데 극히 사소한 사람에 대해 잘 모르는 점이나 있으면 그 사람을 끌어 내다가 물어 보고는 만다.

이렇게 혼자 조용히 앉아 하루 하루를 보내는 성호에게는 자기 반생을 돌이켜 보는 기회가 몇 번이고 생긴다. 감시 구멍을 향해 다리를 포개고 앉아서 눈을 감고 있노라면 모든 지나간 세월의 생각이 마치도 주마등처럼 지나간다. 어릴 때의 추억, 학교 다닐 때의 추억, 명성 소년회 때의 추억, 그리고는 갑산 큰 웅덩이로 이사를 가던 일, 거기서 청맹에 가담했고, 다시 농조에 가담했고 그러다가 류치장에 몇 번이고 잡혀 가 모진 매를 맞던 일, 그 후 다시 동지를 규합하며 방랑하던 일, 령도자를 만나지 못해 애타하던 일, 그 때 만났던 사람들, 그 때 나누던 이야기들, 그 때 가지고 있던 생각 모두가 생생하고 그립다. 그리다가 김 일성 장군을 처음 뵈옵던 그 감격스런 장면, 그 추억이 못 견디게 가슴을 옥죄였다.

(아 지금쯤 그 분은 어디 계실가! 행군을 하고 계신가, 어느 숙영지에서 휴식을 하고 계신가, 그렇지 않으면 원쑤들과 교전을 하고 계신가? 그분은 우리들의 소식을 들으셨을 것이다. 무척 책망을 하실 것이다. 왜 빨리 넘어 오지 않고 거기서 우물 쭈물 하다가 체포 되였 느냐고…)

여기까지 생각이 이른 성호는 자기도 모르게 얼굴이 붉어졌다. 지난 일, 특히 마지막 시기의 일을 생각하면 자기가 너무도 어리였던 것 같고 유치해 보였다. 좀 더 정세를 옳게 파악하고 적에 대한 경각성을 높이 가졌더라면 얼마던지 놈들의 체포망에서 빠져 나왔을 수 있지 않았겠는가. 리원 철산 광산 동무들은 이렇게 된 줄 모르고 얼마나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 것인가. 무슨 소식이 있나 해서 신포 부두 로동자 동무들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홍남 동무들도 그들은 나를 원망할 것이다.—이러한 마음의 가책이 꼬리를 물고 일어 난다.

이런 어느 날, 식사 때도 아닌데 달그락 하더니 구멍 문이 살작 열리며 소제부가 피뜩 들여다 보고

《선생님 이것 보십시요. 보시고 똥통에 내버리십시요.》

하고 다급히 말하면서 손'바닥만한 신문지쪽 하나를 얼른 들여 주고 문을 소리 없이 닫

아 버린다. 성호가 반가워 얼른 그 신문 쪼각을 받아 들었다. 진한 잉크 냄새가 구수하게 풍긴다. 신문을 보던 성호는 너무나도 반가워 하마트면 소리를 지를번 했다. 그것은 기사 한 가지를 오려 낸 쪽지인데 이런 표제로 쓴 기사였다. 《김 일성 공산군 무산 지역에 진출》이라고 한 큰 표제 밑에 지난 5월에 인민 혁명군 약 300 명이 무산 지구에 진출해 무산 지구에서 여러 목재소를 습격했으며 농사동에 집결한 《토벌대》들을 공격했다고 써 있지 않은가. 성호는 금시 가슴이 고동쳤다. 성호는 기사를 몇 번이고 되 읽었다. 읽을수록 맛이 생겼고 기운이 뻗치였다.

《조선 인민 혁명군 만세! 김 일성 장군 만세!》

성호는 속으로 몇 번이고 만세를 불렀다. 성호는 이 기쁜 소식을 동지들에게 속히 알려 주어야 하겠다고 생각했다. 옆방 리 용운에게 급히 통방을 했다. 그리고 신문 내용을 전부 전달했다. 신문은 일본 말 신문인데 기사만 오려 냈기 때문에 무슨 신문인지 모르지만 활자와 종이 질로 보아 당시 라남에서 발간되던 일본 신문《북선일보》 같았다. 성호는 그 말까지 다 통방했다.

점심 때 밥을 들여 주려 소제부가 왔다. 성호는 얼른 밥구멍으로 밥을 받으며 고맙다고 몇 번 치하를 주고 이렇게 말했다.

《동무, 그 신문 쪽지 그냥 있소, 미안하지만 2 사에 있는 권 선생에게 좀 전해 주실 수 없겠소?》

소제부가 잠시 반찬을 담으며 생각하더니

《전해 드릴 수 있어요. 이따 빈 그릇 주실 때 담아 내 보내십시요.》

성호는 마음이 놓였다. 정말 고마운 청년이다. 같은 동지나 무엇이 다른가.

성호는 소제부에 감동되여 한참 멍하니 앉아 있다가 밥을 먹었다.

신문은 그 날 저녁에 권 백 동지에게로 전해졌다. 이 소식을 알게 된 전체 미결감 내 사상범들은 일시에 활기를 띠였다. 동지들의 신심은 더욱 확고해졌다. 승리에 대한 희망, 해방에 대한 희망이 여름 하늘 구름처럼 뭉게뭉게 피여 올랐다.

얼마나 장쾌한 소식이냐, 보천보 전투에 못지 않게 참으로 통쾌하다.

이 기쁜 소식, 감격적인 소식은 동지들을 오래도록 흥분시켰다. 동시에 김 일성 장군에 대한 열렬한 존경과 흠모가 더욱 높아졌다. 모두 자신이 있었다. 이 자신은 날이 갈수록 더 커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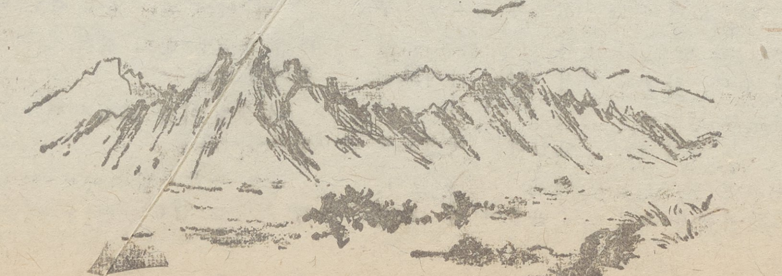
어느덧 철창 밖은 가을 색이 짙어가고 있었다. 수감자들이 가꾼 꽃밭에 피였던 봉선화는 꽃잎이 지고 망울이 잡히여 있었다. 먼 산에는 풀과 나무들이 누렇게 단풍이 지고 있었다. 성호는 아침 저녁으로 방을 청소하면서 창 밖을 바라 보았다. 가을이란 흔히 사람들에게 감상(感傷)을 가져다 주는 절기이다. 그러나 성호는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지만 오래 동안 철창 독방에 갇히워 있는 몸이라 더욱 다감해졌다.

오, 조국이여! 그대를 찾기 위해
내 싸우다가 철창에 갇혔노라.
북으로 나르는 기러기 떼야.
이 회포 그 분께 전하여 주려므나.

장군님! 김 일성 장군님!
장군님을 그리여 수백 수천의 애국 투사들,
철창에 매달려 북쪽 하늘 우러러 보며
래일의 싸움을 준비하나이다.

성호는 흰 구름 둥둥 떠가는 하늘을 바라보며 즉흥시 한 토막을 읊었다. 성호는 이렇게 자유로운 즉흥시를 읊어 보는 시간이 잦아졌다.

(다음 호에 계속)



행복할 수록



박 호 범

행복!

외우면 외울 수록 가슴 뜨거워지는 말, 마치도 잔디 푸른 언덕처럼 정답고 대지에 뿌리 내린 억센 참나무처럼 미덥고, 그리고 헤아릴 수 없는 랑만이 꿈틀거리는 이 말 속에는 얼마나 많은 뜻이 깃들어 있는가?

그대가 그 어디에 섰건 좋다. 땀을 훔치는 이마를 들고 잠시나마 조국 강산을 더듬으면서 생각해 보라!

조국의 동서 해안에 거연히 솟아 사시 장철 태양 빛 쇠'물을 쏟아내는 조국의 강철 기둥, 용광로와 전기로들은 얼마나 좋은가!

시인들이 흔히 조국의 가슴에 달아 준 시대의 훈장이라고 노래하는 대 비날론 공장, 우리 시대의 기념비는 얼마나 큰 자부심을 안겨 주는가!

1944년 1 년간에 생산하던 량을 불과 36일 동안에 생산하게 된 우리의 공업이며 연연 4만리의 관개수 흘러넘쳐 만년 흉풍을 모르는 우리의 농업은 또한 얼마나 장한가!

전국이 학교로 뒤덮인 나라, 무연탄 가스화가 성공되고 20 세기의 과학계를 경탄시키면서 경락의 실태를 발견한 나라, 《세계 최고봉의 예술》의 나라! 생각만 해도 가슴 부풀어 오르는구나! 참으로 우리 조국은 살기도 좋고 일하기도 흥겹다.

지난날 천대와 고역 속에 허덕이던 가난한 머슴'군의 아들 주 성일 동무는 공민의 최고 영예인 로력 영웅으로, 2중 천리마 작업반장으로, 국사를 의논하는 최고 인민 회의 대의원으로 되였다. 어제'날의 머슴'군의 딸로 지주'집 아이 보개 노릇을 하던 김 락희가 군 농업 협동 조합 경영 위원회 위원장으로 되였다. 어제'날 자본가들의 착취와 압박 속에서 헐벗고 굶주리며 살아온 한 기창 동무는 김책 제철소의 지배인으로 일하고 있다.

누구에게나 다 일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였고 누구나 다 배울 수 있는 나라, 저녁이면 책 가방을 들고 공장 대학의 더덩실 높은 청사에 들어서는 것은 원산 철도 공장의 김 정호 동무만이 아니다. 전국의 청년들이, 아니 전국의 인민들이 배우고 있다.

그러기에 여섯 남매를 몽땅 대학과 중학에 보낸 개성시 남안동의 김 중락 로인은 환갑 날에 멀리 평양을 우러러

《수상님! 저는 이 좋은 제월에 90을 넘어 백살까지라도 살겠습니다.》라고 했다는 것이다. 이 한마디 말 속에는 얼마나 우리 시대, 우리 제도에 대한 다함 없는 찬양의 노래가 소박하게 울리고 있는가!

그렇다! 우리는 정말로 행복한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나 이 행복은 결코 저절로 온 것이 아니다. 우리는 행복할 수록 쓰라리고 억울했던 과거를 잊지 말자! 오늘의 행복의 뿌리를 잊지 말자!

조국의 력사를 펼치면 1930년 대가 펼쳐진다. 간고하고도 준엄한 시기, 하늘

땅을 가득히 채우며 눈보라 인다. 울창한 밀림이 몸부림치며 울부짖는다. 산 우에 또 산이 앉은 산'발들이 다가선다. 그 산과 밀림을 누비며 그 눈보라를 헤치며 오늘에로, 오늘에로 걸어 오신 항일의 영웅들! 박 길송, 최 희숙, 마 동희, 리 제순…우리 어찌 한시인들 그들을 잊을수 있겠는가! 그들은 교수대에서도, 감방에서도, 전투의 언덕에서도 최후를 마치면서 《동이 튼다.》고, 《미래를 사랑하라!》고, 《조국이여! 영원히 번영하라!》고 웨치면서 쓰러졌었다.

바로 그분들의 붉은 넋으로하여, 불굴의 투쟁으로하여 오늘은 이룩되였다.

우리들이 오늘의 행복에 대하여 생각할 때마다 번번히 떠 오르는 생각, 그것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살아온 고난 어린 나날인 것이다.

지금은 해마다 오곡이 설레이는 정평 땅 꾸주지'벌, 그 벌의 서성리 굽인돌이에 깃든 옛'이야기를 잊지 말자!

어느 핸가 지주네 땅을 부치고 있던 김 풍헌 로인은 지주에게 불리여 갔다. 당장 빚을 내라는 지주 놈의 호령 소리에 로인은 이마가 땅에 닿도록 허리를 구부리며 좀 더 참아 달라고 애원하였다. 그러나 지주 놈은 빚을 못내겠으면 당장 밭을 내놓으라고 으르렁거리며 로인의 가슴을 찼다. 억울하게도 매를 맞고 서성리 구빈돌이를 돌아 오던 로인은 그만 땅 우에 쓰러지고 말았다. 집에 가자니 맥이 없고…그래도 집에서 돌아 올 아버지의 손을 바래고 있을 어린 것들을 생각하며 기고 또 기던 로인은 아들의 이름을, 손주들의 이름을 부르다가 그만 땅 우에 쓰러졌었다. 이 얼마나 억울했던 지난날인가!

집이 없어서 8.15 해방을 대동강 나루에서 맞았다는 이야기, 옷이 없어 4 부자 간에 하나의 두루마기를 두고 밖에 나갈 때마다 갈아 입고 다녔다는 이야기, 아들의 례장감을 끊으러 점포에 가서 천을 만지다가 그 거칠고 터진 손에 천이 묻어나 보풀이 났다고 퇴욕을

국사를 의논하는 젊은 대의원



《왜 오늘은 나무를 그것 밖에 못 해 왔느냐 앙?》

마루청 우에서 주인놈의 앙칼진 목소리가 들린다. 소년은 지게를 벗다 그만 목을 움추린다.

주인놈은 악에 바쳐 소년을 때린다.

그 날 밤 집에서 쫓겨난 소년은 뒤'뜰악 토방 밑으로 기여가 허리를 꼬부리고 새우잠을 잤다.

…어언간 멀리로 흘러간 20 여 년 전의 이 소년인 즉 바로 오늘날의 최고 인민 회의 대의원인 윤 병권 동무인 것이다.

자강도 시중 군의 어느 한 자그마한 부락에서 태여난 윤 병권 동무는 한창 인민 학교에나 다닐 나이 때부터 벌써 지주'집 머슴으로 되였던 것이다.

오직 우리 제도만이 그에게 행복한 새 생활을 안겨 주었다. 해방 후 그는 비로소 글을 배우고 세상 물정을 알게 되였다. 그의 청춘은 봄을 만나 활짝 꽃 폈고 당당한 나라의 주인이 되였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행복을 굳게 지키기 위하여 윤 병권 동무는 미제가 이 땅에 불을 질렀을 때 놈들을 반대하는 투쟁에 총을 들고 용감히 떨쳐 나섰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 온 그는 붉은 수도의 건설자로써 로력적 위훈을 떨치기 시작하였다.

1957년 그는 영광스럽게도 최고 인민 회의 대의원으로 선거되였다.

어제'날의 머슴이 오늘은 국사를 의논하는 정치 활동가로 되였다.

조국을 지키고 로동에서 단련된 억센 손을 들어 그는 나라일을 결정하였고 조국 통일에 대하여, 인민 경제 계획에 대하여 토론하는 그의 목소리는 남북 조선에 울려 퍼졌다.

그는 젊은 대의원으로서 인민을 위한 일이라면 실로 자기의 심신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어떻게 하면 인민들에게 한 채의 집이라도 더 빨리 제공할 것인가 하는 불 같은 념원으로부터 120여 명의 청년 작업반원들을 한 사람 같이 묶어 세워 조립식 건설의 앞장에 섰고 1958년 국가 계획을 256 %로 초과 실행했으며 건설에서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나의 집 꾸리기 운동》의 발기자가 되였다.

우리 나라에서 처음 10 층 탑식 주택을 세운 이들 윤 병권 천리마 청년 작업반은 올해 20만 세대 주택 고지 점령의 선두에서 전국의 건설자들에게 1인 4 세대 운동을 호소하고 그의 실천에서 앞장 서고 있다.

보았다는 자강도 산'골의 김 두칠 로인의 이야기…너무나도 억울하게 살았다. 그들은 다름 아닌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그들에게는 화창한 봄도 없었고 청춘도 없었다. 자그마한 행복마저도 짓밟혔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은 오직 옛날에만 있은 것은 아니다. 패말 하나를 사이둔 멀지 않은 남녘 땅, 미제의 군화밑에 짓밟히고 있는 남녘 땅에도 있다.

살래야 살'길이 없고 죽을래야 죽을 자리가 없어 제몸을 팔겠다고 신문에 광고를 내지 않으면 안되는 남녘 땅 형제들, 제가 제 목숨을 끊는 기막힌 세상, 거리마다 골목마다에 나붙은 《자살 상담소》의 스산한 간판…

이 모든 것은 과연 뉘의 탓이냐? 그것은 다름 아닌 미제 승냥이들 때문이다. 미제 승냥이들은 우리 조국을 통채로 삼키려하고 있으며 우리의 형제들을 죽이고 짓밟고 있다.

우리는 행복하면 행복할 수록 남반부 형제들을 잊지 말자! 미제 놈들을 이 땅에서 쫓겨내기 위하여 끝까지 투쟁하여야 한다. 두번 다시는 쓰라린 과거와 같이 살지 않기 위하여, 원쑤들의 침해로부터 우리의 소중한 행복, 우리의 제도, 우리 조국을 굳게 지키기 위하여 더욱 힘있게 싸워 나가자! 그 어느 구석에도 부화하고 안일한 현상이 기여들지 못하게 항상 마음의 준비를 다지자.

우리 앞에는 보다 휘황한 행복의 동산이 바라 보인다. 그러나 그 행복은 결코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다. 행복은 투쟁으로 쟁취해야만 한다. 지난날 우리의 혁명 선배들이 투쟁으로 오늘의 행복을 쟁취했드시 우리도 오늘의 투쟁으로 래일의 보다큰 행복을 전취하자!

우리는 지금 6개 고지를 점령하는 마지막 돌격선에 섰다. 우리는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금년도 6개 고지를 점령하여야 한다.

청년들이여!

모두다 6개 고지 점령을 위하여 보다 전투적으로, 보다 진공적으로 일하자!

젊은 공훈 배우



얼마 전 헬싱키에서 있은 제 8 차 세계 청년 학생 축전 예술 콩클에서 재능 있는 공훈 배우 홍 정화는 독무 《북춤》을 추고 금메달을 수여 받았다.

그의 춤은 관중들의 심장을 틀어 쥐였으며 여러 번의 재청을 받았다. 이 재능 있는 예술가는 해방 후 당의 품속에서 자라났었다.

정화의 어머니는 언젠가 학교에 다니는 딸에게 이렇게 말했다.

《왜정 때 나는 석탄재를 뒤져 팔아서 너를 길렀다. 그 때 같애서는 예술이 뭐냐? 이름 석자도 배워 줄 것 같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너는 한 푼의 월사금 없이 금 주고도 못할 공부를 한다.

세상의 고마움을 알아라!》

실로 과거 일제 하에서야 로동자의 딸이 중학교, 무용 학교를 다니고 무용가가 되다니 어디 꿈에나 생각할 수 있었겠는가.

오직 사람들의 소질과 희망이 활짝 꽃 필 수 있게 하는 우리의 사회 제도는 그가 장차 재능 있는 무용가로 발전할 수 있는 길을 환하게 열어 주었던 것이다.

홍 정화 동무는 1958년 11월 모란봉 극장에서 공연된 《목동과 처녀》에서 목동 역으로 출연하여 관중들의 절찬을 받았다. 약동적이면서도 락천적인 그의 률동, 강하면서도 섬세하고, 빠르면서도 여유 있는 그의 률동은 관중들의 박수 갈채를 자아 내였다.

그 때로부터 불과 3 년 세월이 흘렀다. 그러나 이 3 년 간에 홍 정화는 우리 인민의 극진한 사랑을 받는 공훈 배우로 되였으며 국제 무대에서도 절찬을 받는 무용 예술가로 자라났다.

홍 정화는 재능 있는 무용수일 뿐만 아니라 재능 있는 안무가이기도 하다.

재작년에 있은 전국 개인 경연에서 그가 안무한 첫 작품 《분배 받는 기쁨》은 영예의 1 등 상을 받았고 제 4 차 당 대회에 드리는 경축 무 《방울춤》을 비롯하여 《환희》, 《동심》, 《행복의 실오리》등은 관중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그는 무용 언어로써 자기를 예술가로 길러 준 당과 조국을 노래하며 벅찬 현실을 무용에 담아 근로자들을 힘차게 고무하고 있다.



《민청호》 선장

류 명호는 바다에서 나서 바다에서 자랐다.

그가 세상에 태여나서 처음 들은 것은 방파제를 치는 파도 소리였고 처음으로 본 세상도 가없이 넓고 아름다운 바다였었다.

그러나 그가 본 것은 비단 이와 같이 아름다운 바다만이 아니였다. 그는 바다 사람들의 비참하고 구슬픈 생활을 보았다. 배에 사고를 내고 영악한 선주놈 한테 얻어 맞는 배'사람들을 보았고 바다에 나간 사람들이 조난당하여 돌아 오지 못하여 목 놓아 우는 어머니와 안해들을 보았다.

아니 그것은 정녕 생지옥이였었다.

류 명호 자신도 바로 그렇게 천대 받고 빈궁한 어부의 아들로 태여나 무서운 고역 속에 나날을 보냈다.

해방 후 은혜로운 조국과 당은 명호에게 로동의 보람을 안겨 주었다.

사회주의 제도 하에서 로동은 가장 영예롭고 신성하고 귀중한 것으로 되였다.

열 아홉 살의 꽃 피는 청춘에 바다로 뛰여 나간 명호는 어느덧 《민청호》 선장이 되였다. 특히 그는 서해에서 맨 처음으로 용감하게 원해에로 진출하였다.

그의 2 척 기선 저예망선은《서해에서는 겨울철 고기잡이》가 불가능하다는 오랜 전통을 짓부시고 령하 30 도의 혹한 속에도 원해에로 나아가 300 일 출어의 붉은 기'발을 높이 추켜 들었다.

그는 자기를 낳아 기른 어머니 당에 보답하기 위한 길이라면 자기의 심신을 아끼지 않았다.

추운 겨울 날 초속 15 메터의 세찬 바람과 5 바르를 넘는 파도가 마스트를 때리는 원해의 한 복판에서 로쁘가 추진기에 걸려 위험에 처했을 때에도 그는 용감하게 물 속에 뛰여 들어 다섯 번, 일곱번씩이나 자맥질하면서 배를 구출해 내였다.

그는 지난 2월 전국 수산 부문 일'군 열성자 회의 때에' 공화국 공민의 최고 영예인 로력 영웅이 되였다.

오늘도 그의 《민청호》선은 금년도 80만 톤 수산물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억센 투쟁에 앞장서고 있다.

독자문예

행복을 두고, 미래를 두고

하루일 끝마치고 돌아 올제면
벨트 콤베야에 붙어 선 처녀…
말 없이도 서로의 눈'길은 마주친다네
말 없이도 그 눈'길은 묻고 있다네
—오늘의 책임량 어찌 됐어요?

하루일 끝마치고 들악에 들어 서면
동생들 달려 나와 매여 달리네
—난 오늘도 5 점이애요.
형님의 하루 일은 몇 점이애요?

나는 행복을 두고 생각하노라.
나는 그 뉘보다 행복을 귀중히 여기는
사람.
만일 나에게 가장 행복한 날을 묻는다면
서슴없이 대답하리라.
내 하루일 하루 생활이
머물음도 굼뜸도 없이
미래에로 미래에로 나아간 날이라고…

아름다운 미래를 바라 보는 일
이처럼 행복한 일 없으리라
그보다 미래를 위하여 투쟁하는 것
그는 더더욱 큰 행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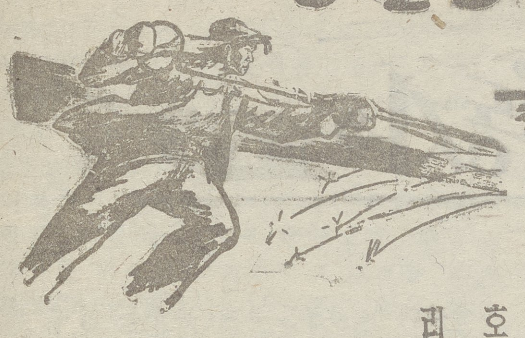
먼 후'날 아우들이, 아직은 태여나지
아니한 후대들이
오늘에 대하여 나에게 묻는다면
나는 서슴 없이 대답하리라.
여섯 개 고지 전선에서 내 부끄러움 없이,
부끄러움 없이 싸웠노라고…

함남 운곡 탄광

김 영 호

(시)

강철공들 돌격 앞으로!



리 호 일

하늘에 불기둥 솟구치며
용광로에 쇠'돌 녹이는
강철공들의 후더운 심장에
불'길이 솟는다. 불'길이 솟는다.

120일 전투에로 부르는
당의 전투 명령 내렸거니,
번개와 우뢰를 휘여잡고
탑뼁봉은 총창같이 번쩍인다.

이마우에 버쩍 색안경 올리고
류출구를 바라보는 눈'빛속에
강철 고지 우에 펄펄 휘날릴
붉은 기'발이 찬연히 비껴오거늘

강철공들의 가슴에 끓는 쇠'물은
당에 대한 다함 없는 충성의 물'결
폭풍도 절벽도 헤치고 전진하는
천리마 기수들의 불굴의 의지.

지축을 흔들며 펑펑 쏟아지는
쇠'물의 웨침을 노래로 들으며
붉은 폭포 도도히 흐르는
쇠'물의 구비침을 춤으로 즐기며

질풍이 되여 날아 오르자.
120만 톤 강철 고지로!
1,211 고지 용사들의 심장을 안고
120만 톤 강철 고지로—

강철공들이여
여섯 개 고지 산상우에
로력의 금자탑을 높이 세우자
승리의 기'발을 높이 휘날리자

저 승리봉에 우뚝 올라서면
우리 주권, 우리 제도 더더욱 반석으로
다져지고
간악한 원쑤들 전률하리니
강철공들이여 모두다 돌격 앞으로!





굴진공의 《눈'동자》

려천 탄광 조 인호 천리마 청년 작업반의 굴진공 정 창국 동무는 4 년간 단 한번의 결근도 없이 근면하게 일해 온 동무이다.

그는 오늘도 1,500만 톤의 석탄 고지 점령을 위하여 날마다 자기 계획을 초과 완수하면서 힘차게 싸우고 있다.

또한 그는 자기의 착암기와 갱내 설비를 매우 사랑하는 동무이다. 그의 착암기 《떼그 508호》는 언제나 깨끗히 정비되여 있고 고장도 없으며 그 리용률도 높다.

그가 이렇게 착암기를 사랑하는 데는 깊은 사연이 있었다. 그가 착암기를 잡은 지 며칠 되지 않는 어느날 그는 착암기에 사고를 내였다. 이때 오랜 굴진공인 강 옥현 동무가 동발을 메고 올라왔다.

《착암기가 고장 났나?》

《네…》

옥현이는 창국에게서 착암기를 받아들고 거기에 안전등의 불'빛을 바싹 가까이 대드니 분해하기 시작하였다. 얼마 후 그는 배관에서 자그마한 돌 하나를 끄집어 내였다. 그의 얼굴엔 심중한 빛이 어려 있었다.

《창국 동무, 앞으로 이 착암기를 잘 다루어야겠네, 동문 이 착암기가 어떤 착암기라는 것을 잘 알아야 하네.》

이렇게 말하면서 옥현이는 차근차근 이야기하였다.

《우린 지난 전쟁 때에 적들의 맹폭 속에서도 탄광 설비들을 목숨으로 지켰지. 생각해 보라구. 그래 동무는 어떤 사람의 아들인가, 오랜 광부의 아들이네! 왜정 때 동무의 아버지는 미국 승냥이들이 경영하던 대유동 광산에서 일하다가 놈들의 불비된 시설로하여 희생되지 않았나! 그런 아버지를 놈들은 버럭 밑에다 그냥 묻어 버렸네…》

《………》

《…우리는 우리의 부모 형제들이 당했던 억울한 지난날을 생각해서라도 더욱 일을 잘 해야 할게 아닌가.》

그날 밤 창국이는 자리에 누웠으나 잠들 수 없었다. 그는 정말로 앞으로는 착암기를 자기의 눈'동자처럼 사랑하리라 굳게 마음 먹었다.

이런 일이 있은 후부터 착암기에 대한 창국이의 태도는 일변하였다. 그는 일이 끝나면 남달리 착암기를 깐깐히 소제하였고 그의 보관 관리 사업을 철저히 하였다. 그리고 일상적인 보수 점검 사업도 잘 하였다.

(우등 사수가 되기 위하여서는 무기에 대하여 잘 알고 그에 정통하여야 하듯이 나도 착암기에 대해 잘 알아야 하며 정통하여야 한다.)

이렇게 생각한 창국은 착암기의 구조와 그의 성능을 파악하기에 힘썼고 채탄 기사나 로련한 기능공들을 따라 다니면서 천공 위치 잡는 법, 각도를 잡는법 등을 배우기에 힘 썼다.

그에게는 조그마한 수첩과 공구함이 있다. 그 수첩에는 자기 착암기의 매개 부속들과 부분들의 이름과 그의 교체 년월일, 점검 시일 등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고 그의 공구함에는 여러 가지 예비 부속들이 언제나 들어 차 있군 하였다.

어느 비 오는 날 중 교대로 갱내에 들어 가던 동무들은 앞에서 걸어 가던 창국이가 진탕 속에서 무엇을 손으로 파내고 있는 것을 보았다.

(무엇일가?)

의아해서 옆에 다가 선 동무들은 창국이가 그 진탕 속에서 착암기에 쓰일 조그만한 나사못을 발견하고 그것을 파낸다는 것을 알았다. 나사못은 녹이 쓸어 있었다. 그러나 창국이는 큰 보물이나 얻은 듯이 그것을 손으로 닦아 주머니에 전사하면서 기뻐하는 것이였다.

《…모두 웃지들 말라구, 다 건사해 두면 쓸 때가 있어.》

그가 얼마나 설비를 애호하는 가에 대하여서는 이런 이야기가 있다.

북갱에서 3 호 올리굴을 뚫을 때였다. 착암기를 들이 대고 몇 구멍 뚫는데



갑자기 암석 사이로 출수가 나오기 시작하였다. 잠시도 지체할 수 없는 순간이다. 이런 때 동무들을 데리려 2,000여 메터의 갱구 밖으로 나간다는 문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였다.

(어떻게 할 것인가? 출수가 콱 내미는 날이면 갱내 모든 시설이 일시에 파괴되여 버릴 것이며 인명의 피해도 있을 것이 아닌가.)

창국이는 굳게 결심했다. (이러한 때에 민청원이 피할 곳은 없다.)

그의 머리 속에는 갱내 설비들을 구원해야 한다는 일념만 가득하였다. 분수처럼 내뿜는 출수 구멍을 막으려고 작업복을 벗어 틀어 막았으나 소용 없게 되자 그는 자기 몸을 들이 대여 막았다. 그는 자기 몸으로 갱내의 설비들을 구원해 냈던 것이다.

이런 일도 있었다. 어느 날 그는 깐데라가 부족하여 창고에 가 보았다. 거기에는 수리만 하면 쓸 수 있는 깐데라가 많이 있었다. 그것을 고치려 집으로 가져 갔으나 청강수와 납이 없었다.

얼마 후 창국은 휴가를 맞게 되였다. 그러자 그는 수백 리 밖에 있는 평북 동림군에 있는 신곡 광산 공작소에까지 찾아 가 청강수와 납 기타 수리에 필요되는 약품들을 얻어 가지고 돌아와 귀중한 휴가 기간을 몽땅 바쳐 가면서 70 여 개의 깐데라를 수리하여 재생시켰던 것이다.

바로 이런 동무이기에 그가 다루는 착암기의 리용률은 각별히 높다.

그는 벌써 지난 6월 25일 현재 상반년 계획을 105 %로 초과 수행함으로써 1,500만 톤 석탄 고지 점령의 앞장에 섰다.

창국 동무의 수첩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착암기—그것은 굴진공의 눈'동자이다.…》

(본사 기자)

계급과 당

최 북 성

계급 투쟁의 가장 집중적 표현은 계급의 투쟁을 지도하고 조직하는 정당들간의 투쟁에서 나타난다. 로동계급이 부르죠아지를 타도하고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위대한 력사적 사명은 오직 혁명적 로동계급의 당, 맑스—레닌주의 당의 령도에 의해서만 승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계급 투쟁의 리론과 실천에서 계급과 당에 관한 문제를 깊이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면 당이란 무엇인가? 당은 계급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당 (정당)이란 일정한 계급의 리익을 대표하며 그 계급의 투쟁을 지도하는 정치적 조직이다.

당은 그 어떤 가족 관계나 우정 관계에 근거를 두는 것이 아니라 계급적 토대에 기초하여 조직된다.

례컨대, 부르죠아 정당은 자본가 계급의 리익을 옹호하며 그와는 달리 프로레타리아트의 당은 로동 계급의 리익을 옹호한다.

그렇다고 하여 계급과 당이 같은 것은 아니다. 당은 어느 때나 결코 계급 전체를 포괄하지 않으며 언제나 계급의 일부분일 따름이다. 그리고 계급들은 사회의 경제적 발전의 결과로서 자연 발생적으로 발생하나 당은 일정한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소요 계급의 가장 적극적인 대표자들이 의식적으로 단합된 결과에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당은 계급이 형성된 다음에 발생하며 또한 계급은 당에 의하여 정치적으로 조직되고 공고화 된다.

로동 계급의 전위적 당, 맑스—레닌주의 당은 로동 계급의 한 부분이면서—로동 계급의 선봉적 조직적 부대이며, 로동 계급의 의식성과 조직성의 최고 표현이다.

맑스—레닌주의 당은 로동 계급과 근로 대중의 리해 관계를 대표하며 그를 철저히 옹호하는 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한다.

조선 로동당 규약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여 있다.

《조선 로동당은 우리 나라 로동 계급과 전체 근로 대중의 선봉적, 조직적 부대이다.

조선 로동당은 조선 민족과 조선 인민의 리익을 대표한다.

조선 로동당은 로동자, 농민, 지식인 등 모든 근로자들 가운데서 근로 대중의 리익을 옹호하는 선진적 투사들로써 조직한다.》

이제는 왜 로동 계급에게 자기의 혁명적 당이 필요한가를 보기로 하자.

다 아는 바와 같이 로동 계급의 진정한 리해 관계는 사람이 사람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자본주의 제도를 때려 부실 것을 요구한다. 그런데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그를 위하여서는 자본가 계급과의 간고하고 치렬한 투쟁을 해야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르죠아지는 모든 생산 수단을 독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군대, 경찰, 감옥과 같은 강제 기구를 가지고 있으며 방대한 선전 수단을 틀어 쥐고 있다. 그들은 로동 계급의 혁명적 진출을 저지시키기 위하여 이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며 갖은 방법으로 로동 계급의 투쟁을 탄압한다.

이러한 어려운 싸움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자면 사회 발전 법칙과 계급 투쟁의 법칙으로 무장한 강철 같은 당의 령도가 있어야 한다. 즉 자본주의 하에서 로동 계급은 가진 것이란 없다. 오직 로동 계급의 강대한 원쑤를 타승하려면 그들의 힘을 단합하여 굳게 단결하는 것 밖에 다른 길이 없다. 이와 같이 단결은 로동 계급의 원쑤들과 성과적으로 투쟁할 수 있는 유일한 밑천이다. 이러한 로동 계급의 단결은 오직 혁명적 당에 의해서 이룩되는 것이다.

또한 부르죠아지의 온갖 사상 공세로부터 로동 계급과 근로자들을 보호하며 그들에게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 맑스—레닌주의 사상을 주입하며 그들을 혁명적 의식과 계급성으로 무장시키는 것은 오직 로동 계급의 혁명적 당에 의해서만 이룩되는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라 간악하고 음흉한 반동적 부르죠지아와의 투쟁은 사회 생활의 모든 분야에 걸치는 복잡한 투쟁이다. 이러한 복잡하고 어려운 투쟁에서 로동 계급을 승리에로 조직 동원하려면 능숙한 참모부가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참모부로 되는 것이 바로 맑스—레닌주의 당이다.

더 나아가서 당은 로동 계급이 자기의 동맹자에 대한 령도를 보장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로동 계급이 온갖 반동적인 것과 련합된 자본주의를 전복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근로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인민 대중을 혁명의 편에 인입해야 하며 그들을 인도해야 한다. 자기의 동맹자에 대한 로동 계급의 이러한 지도는 오직 그의 전위대인 당을 통해서만 성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맑스—레닌주의 당은 로동 계급의 정치적 수령이며 전투적 참모부이다. 맑스—레닌주의 당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로동 계급은 두뇌 없는 신체, 키 없는 돛배와 같다고 말할 수 있다.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한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은 항일 무장 투쟁의 말할 수 없이 간고한 조건 하에서도 당 창건을 위한 사업을 가장 중요한 문제로 제기하고 당 창건을 위한 조직 사상적 준비를 튼튼히 갖추었으며 해방 후에는 그 준비에 기초하여 지체 없이 당을 창건하였던 것이다.

력사적 경험은 당의 정확한 령도가 없이는 로동 계급이 자본주의의 멍에를 벗어 던질 수 없으며 설사 부르죠아 정권을 전복한다고 하더라도 혁명의 전취물을 옳게 수호하고 확대해 나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러면 로동 계급의 정치적 참모부인

맑스—레닌주의 당은 계급 투쟁, 혁명 투쟁에서 어떤 역할을 노는가?

우선 당은 백전백승의 맑스—레닌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혁명 발전의 매 시기마다 내외 정세와 계급적 력량 관계 등을 옳게 타산하고 과학적인 전략과 전술, 로선과 정책을 수립한다.

당은 비단 옳은 정책을 수립할 뿐만 아니라 그에 의거하여 로동 계급과 근로 대중을 혁명의 승리적인 투쟁에로 조직 동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맑스—레닌주의 당을 가리켜 로동 계급의 정치적 지도자이며 모든 승리의 조직자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당은 로동 계급과 근로 대중에 대한 일상적인 교양자로 된다. 당은 그들이 자기의 계급적 처지를 파악하고 그 립장에 확고히 서서 자본주의의 전복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성스러운 력사적 임무 수행에 적극 참가하도록 교양하며 더 나아가서 그들을 새형의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개조한다.

당은 이와 같이 정치적 지도자로 될 때만이 혁명 수행의 참모부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명의 변절자들인 현대 수정주의자들은 혁명에서 맑스-레닌주의 당의 령도를 거부한다. 수정주의자들은 당은 정치적 지도자로 되여서는 안 되며 그 어떤 《토론 구락부》 비슷한 것으로 되여야 한다고 떠버린다. 이것은 말로는 당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 당을 거부하는 것이다. 그 리유는 만일 그 자들의 말 대로 된다면 당은 있으나 마나한 존재로 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 자들은 원쑤들 앞에서 로동 계급을 무장 해제시키려는 것이다.

해방 후 우리 나라 혁명 투쟁에서 달성된 모든 빛나는 성과와 승리는 오직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 로동당의 옳바른 령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항일 무장 투쟁의 간고한 불'길 속에서 그 토대가 튼튼히 닦아졌고 세련된 령도 핵심에 의하여 지도되는 우리 당은 조선 혁명 발전의 매 시기마다 로동 계급과 근로 대중에게 앞길을 휘황히 밝혀 주었으며 우리 혁명을 가장 가까운 승리의 길로 현명하게 인도하였다.

오늘 우리 조국의 륭성 발전, 우리 인민의 번영과 행복은 그 어느 하나도 우리 당의 정확하고 세련된 령도와 떼여 놓고서는 생각조차 할 수 없다.

× ×

우리 당도 포함하여 모든 맑스—레닌주의 당들이 불패의 위력을 가진 것은 그가 사회 발전과 계급 투쟁의 법칙, 백전백승의 맑스—레닌주의 사상과 리론으로 무장되여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것이 부르죠아지 당이나 소부르죠아지 당을 포함한 다른 모든 당들과 원칙적으로 구분되는 차이점의 하나이다.

때문에 온갖 계급적 원쑤들은 프로레타리아트의 혁명적 당으로부터 백전백승의 맑스—레닌주의 무기를 빼앗아 내려고 날뛴다.

특히 오늘 날 찌또를 비롯한 현대 수정주의자들은 《맑스주의》의 옷을 입고 우리를 배후로부터 공격하려고 책동한다. 이리하여 맑스—레닌주의를 《발전》시킨다는 가면을 쓰고 맑스—레닌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계급 투쟁의 리론을 《개작》하며 프로레타리아 독재와 당의 령도를 거부함으로써 맑스—레닌주의의 혁명적 리론의 진수를 거세하려고 시도한다.

그렇기 때문에 계급 투쟁과 혁명 수행에서 당이 정치적 참모부로써의 역할을 옳게 수행하려면 온갖 원쑤들의 책동을 물리치고 맑스—레닌주의 순결성을 끝까지 철저히 고수하며 그 원칙에 튼튼히 서는 문제가 사활적인 요구로 제기되는 것이다.

또한 로동 계급의 혁명적 당이 혁명 수행에서 참모부의 역할을 옳게 수행하자면 맑스—레닌주의 조직 원칙에 기초하여 자기 대렬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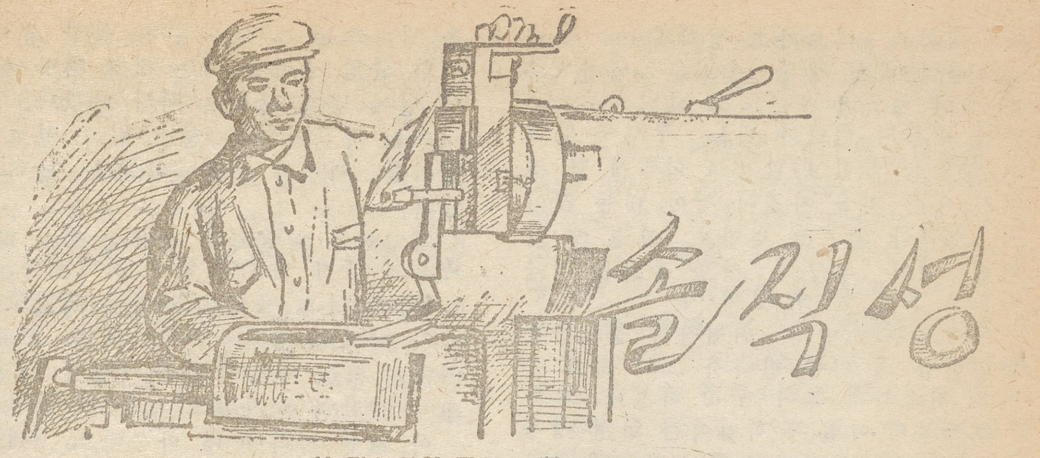
온갖 맑스—레닌주의의 원쑤들, 기회주의자들과 종파 분자들은 이것을 반대해 나선다. 이 자들은 당내 무원칙한 《자유》를부르짖고 나선다.

력사적 경험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이것은 당을 무기력하게 하며 당을 말아 먹으려는 변절자들의 수작이다.

어디까지나 맑스—레닌주의 당의 불패의 위력은 민주주의 중앙 집권제의 조직 원칙에 립각한 그 대렬의 강철 같은 통일과 단결에 있다. 그리고 당 대렬의 사상, 의지, 행동상의 통일이 없이는 로동 계급의 계급 투쟁과 혁명 투쟁에서의 승리도 기대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은 창건 첫날부터 시종 일관 맑스—레닌주의의 순결성과 당 대렬의 통일 단결을 위하여 강력히 투쟁하여 왔으며 장구한 기간 우리 당과 우리 나라 로동 운동에 해독을 끼쳐 온 종파들을 뿌리 채 청산하고 당의 통일과 단결을 결정적으로 강화하였으며 조선 공산주의 운동의 완전한 통일을 달성하였다.

청년들은 계속 맑스—레닌주의 순결성과 우리 당의 통일 단결을 눈'동자와 같이 고수하며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 로동당의 주위에 철석 같이 단결하여 당이 가리키는 혁명 승리의 길로 더욱 힘차게 전진할 것이다.



— 한 민청원의 민청 생활 총화에서 —

하루 일이 끝나고 책상에 마주 앉은 학범 동무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전날 분조장은 다음 주 분조에서 하기로 된 민청 생활 총화를 앞두고 그에게 민청원의 의무 (ㅂ) 조항을 가지고 민청 생활을 총화해 볼 것을 이야기했던 것이다.

《민청원은 로동 규률을 자각적으로 지키며 로동 생산 능률을 높이며…》

규약 책을 더듬는 학범의 마음은 좀체로 진정되지 않았으며 생각은 자꾸만 헛갈렸다.

(어떻게 총화할 것인가? 먼저 번 총화때처럼 그저 잘 못했다고만 말할가? 속시원히 털어 놓고 말하면 동무들은 〈그 학범이가 제 잘난척 하더니 한풀 꺾이였어〉하고 비웃을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니 어쩐지 가슴 속에서 꿈틀거리는 자존심이 허락되지 않는 것이였다.

그렇다고 꾹 참고 결함을 덮어 버리자니 그것은 더욱 마음 괴로운 일이였다.

그에게는 지난 주일에 있은 일이 새삼스럽게 떠올랐다.

하루 아침 그는 남들보다 직장에 뒤늦게 출근하였다.

벌써 출근 시간도 퍽 지났으나 학범이는 《태연하게》 직장에 들어 섰다.

동무들은 그를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

자기 기대에서는 직장장 동무가 작업복 차림으로 일하고 있었다.

직장장은 못마땅한 얼굴로 분'기를 가까스로 참아 가며 말했다.

《왜 늦었소?》

《몸이 좀 괴로워서요.》

학범이는 마치 아픔을 가까스로 참아내는 시늉을 하면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럼 병원으로 가보오.》

《괜찮어요.》

학범이는 잘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기대를 잡긴 했으나 일은 도제 손에 잡히지 않았다. 지난밤에 과음했던 탓으로 기분은 흐리터분 했다.

손에 잡히지 않는 일이 결코 성과를 올릴 수는 없었다. 이날 그가 만들어 놓은 제품에는 오작품이 생겼다. 그의 불성실한 로동은 전 생산 공정에 지장을 주게 되였다.

이런 일이 있은 후부터 그의 마음은 평온하지 못했다.

아무리 철없이 놀기는 했어도 거짓으로 조직과 동지들을 속인 것이 두고 두고 뉘우쳐 지는 것이 였다.

더우기 이것은 기업소의 전체 생산 공정에까지 영향을 주지 않았던가!

…학범이는 무엇인가 결심하고 책상에서 일어나 민청 단체 위원장을 찾아갔다. 학범이가 요지음 겪고 있는 마음의 고민에 대하여 털어 놓고 이야기했을 때 민청 위원장은 흥분하여 그의 손을 덥석 잡기까지 하였다.

《정말 반갑군…그렇게 고민한다는 것부터가 자기 생활에 대해서 진지하

게 대하는 태도라고 생각해…

그런데 민청 생활 총화란 어떤 〈자백〉이나 경과를 말하는 게 아니야…지난 날의 결함의 원인이 어느 구석에 있었고, 무엇을 몰랐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자신이 찾아 내는 것이지. 그래야 앞으로 결함도 고칠 수 있거던, 내가 동무의 생활 총화를 적극적으로 도와 줄 수 있어…》

이때로부터 민청 위원장과 분조장은 학범이를 더 자주 만나서 그의 총화 준비를 친절하게 도와 주군 하였다.

그로부터 며칠 후 학범이는 민청 생활 총화 회의에 참가하였다. 그러나 마음은 어쩐지 진정할 수 없었다.



민청원들 앞에 나선 그는 고개를 숙이고 잠시 머뭇거렸다.

《나는 민청원의 의무 (ㅂ) 조항을 중심으로 지난 기간 나의 민청 생활을 진심으로 총화해 보려합니다.》

이렇게 말문을 뗀 그는 얼굴을 붉히며 떠염떠염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 이야기는 학범이가 초중을 졸업하던 때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였다.

…초중 졸업장을 들고 집으로 달려온 날, 그는 그리 씨원치 못한 성적이 적힌 졸업 증서를 되는 대로 책장 사이에 밀어 넣고 밖으로 뛰여 나갔다.

그는 비둘기'장의 문을 버럭 열고 비둘기를 꺼내여 푸른 하늘로 날려 보냈다.

학범이는 비둘기의 날음을 지켜 보며 속으로 몹시 만족해 하는 것이였다.

(이젠 나도 자유로운 몸이 되였구나, 누가 나보고 시험 공부하라고 조르는 사람도 없을 게고 숙제나 예습을 안했다고 꾸지람하는 사람도 없을 게 아닌가.

이 넓은 사회야 내 마음대로, 내 생각하는대로 할 수 있을 게 아닌가?)

그는 사회 생활의 첫 걸음을 이렇게 디디였다.

그리하여 학범이는 이곳 평양 전기 공장 기구 직장 쎄빠공으로 배치된 후에도 우선 제멋 대로 행동해 보려 했고 공장에서나 집에 돌아 와서는 마음 내키는 대로 하려고 하였다.

그는 우선 어른 행세를 하고 싶은 게 첫째《소원》이였다. 그래서 담배를 피워 보았고 술도 몇 번 마셔 보았다. 그래도 누가 까다롭게 말하는 사람은 없었다.

차츰 이런 생활에 끌리다 보니 그는 로동 규률을 위반하는 것쯤은 례상사로 되였다.

《…동무들은 이제야 제가 때때로 지각하는 리유를 알았을 것입니다. 나는 일부 사람들과 휩쓸려 몰래 술을 마셨고, 밤 늦게야 집에 들어 오군 하였습니다. 술 마시고 어머니 앞에서 버르장머리 없이 주정한 일도 있었습니다. 집에서 늦잠을 자다가 그만 출근이 늦어지면 변명할 말을 꾸미느라 애를 썼습니다.



나에게 결함이 있다 보니 다른 동무의 결함을 내 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학범이의 이와 같은 그릇된 생활 태도가 집단 속에서 허용될 리는 없었다.

성실한 사람들과 집단은 그를 방임하지 않았다.

직장 간부들과 민청 조직은 그의 결함을 제때에 깨우쳐 주었고 고치도록 타일렀다. 그럴 때마다 그는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고, 자기를 함께 이끌고 나가려는 사람들을 도리여 자기를 《구속》하는 사람들처럼 시끄럽게 여겼다. 그래서 그들에게 곁을 주지 않았고 집단 생활에 휩쓸리지 않았다.

그렇게 되고 보니 자연히 학습에서도 게을러지고 하루 일이 분공될 때면 될수록 쉬운 일을 맡으려 했고 오작품을 만들어 놓고도 그리 가슴 아프게 느끼지 못했다.

《…나는 바로 이렇게 민청원의 의무 (ㅂ) 조항 아니, (ㅅ), (ㅇ) 조항과도 하등 인연이 없는 생활을 해 왔습니다.

나는 오늘에야 비로소 자기 민청 생활을 진심으로 총화하는 것이 이렇게도 중요하다는 것을 처음 깨닫게 되였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날 나는 무엇을 몰랐겠습니까? 그것은 민청원으로서 민청 생활이 무엇인지를 잘 몰랐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알려고 애쓰지 않았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민청 생활에 성실치 못함으로써 로동에 대한 그릇된 관점도 제때에 고칠수 없었습니다. 결국 나는 민청 조직의 성원으로, 사회의 한 성원으로서의 위치와 책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나에게는 혁명의 큰 수레 바퀴를 돌리는 하나의 나사못이라는 깊은 자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나는 뒤떨어졌던 나의 생활을 성실한 학습과 로동을 통하여 추켜 세우며 (ㅂ) 조항의 요구대로 행동하며 새 것에 민감하렵니다.》

학범이의 이야기는 끝났다. 그의 토론은 참으로 솔직하였고 진실하였다.

그의 동무들은 여지껏 한 분조에서 생활하면서도 학범이의 그처럼 심각한 얼굴과 그처럼 솔직한 토론을 처음 들었다.

동무들은 그를 어제'날의 학범으로가 아니라 새로 탄생한 학범으로 보았다.

× • ×

기자는 총화 후 학범 동무의 자랑스러운 생활의 몇 토막을 더 소개하려 한다.

그는 두 번에 걸치는 직장 생산 경기 대회에서 일등하여 공장 신문 벽보와 속보에 크게 이름이 나붙었다.

인제는 누가 일을 시켜서가 아니라 자각적으로 일을 찾아 하는 좋은 습성이 자라 났다. 학범 동무는 절약 초소장을 책임지고 근 4 톤의 파철을 수집하여 8월에는 국가 소재를 받지 않고 그것으로 자기의 매일 계획을 200 프로씩 올리고 있다. 또한 쎄빠의 자동 바이트를 제손으로 창안하여 생산에 도입함으로써 로동 생산 능률을 근 2 배로 장성시켰던 것이다.

로동에 성실해진 그는 남의 잘못을 보고 참지 못하는 원칙성 있는 민청원으로 되였다.

학범이는 바로 이런 민청원이 되였다.

그는 민청원의 의무에 언제나 변함 없이 충실할 굳은 결의로 가득차 있다.

본사 기자 류 승환

불타는 시절



예로부터 사람들은 벼 한 줄기에서 이삭이 하나씩 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한 줄기에서 두 이삭도 아니요 세 이삭이나 돋아 나고 있으니 과연 이것이 어찌된 일인가?

우리는 이것을 어떤 실험실에서나 혹은 전문적인 농사 시험장에서 본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함주군 주서 농업 협동 조합에서 있은 일이다. 우리는 이것이 당의 부름을 받들고 농촌에 진출하여 일하면서 배워 붉은 농산 기사가 된 림 완균 동무의 고심 참담한 연구의 열매이라는 것을 알고 더욱이 놀랐다.

과연 그는 어떻게 농촌에서 자기의 보람찬 리상을 꽃피우고 있으며 일하면서 배워 기사가 된 것일가?

과연 어떤 노력과 정열을 기우려 그는 자기의 연구 사업에서 그러듯 높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을가?

여기에 우리는 27 세의 젊은 기사 림 완균 동무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한다.

첫 출 발

1954년.

이때 농촌은 전쟁의 혹심한 후과를 가시기 위한 어려운 투쟁을 전개하고 있었다.

우리 당은 자기의 훌륭한 아들딸들인 초고중 졸업생들을 농촌에로 불렀다. 당시 수천 수만의 초고중 졸업생들이 자기들을 키워 준 당의 부름을 받들고 커다란 포부와 희망을 안고·《농촌으로!》앞을 다투어 진출하였다.

이 대렬 속에 19 세의 봄을 맞이한 림 완균 동무도 섞여 있었다. 농촌에 진출하면서 그는 자기의 사랑하는 고향을 두고, 아름다운 미래를 두고 많은 것을 생각하였다.

완균 동무가 자기의 리상을 고향에서 꽃피우려고 하는데는 남다른 사정도 있었다.

그는 전쟁 시기 원쑤놈들에게 사랑하는 아버지를 빼앗겼다. 그는 자주 자기 아버지가 생전에 타이르던 말을 회상하군 하였다.

《사람이란 언제나 고향을 사랑할 줄 아는 훌륭한 사람이 되여야 한다.》는 아버지의 간곡한 말씀은 언제나 그의 마음 속 깊이에 간직되여 있었다.

그러나 그 어떤 결심이라고 해도 결심, 그 자체로서는 아무 것도 실현될 수 없다. 오직 모든 난관을 이악하게 뚫고 나가야 사업의 성과를 이룩하는 것이다. 농촌에서 일을 시작하니 아직 해보지 않던 일이 돼서 몹시 피곤하였으며 난관이란 한 두 가지가 아니였다.

그러다 완균 동무는 모든 난관을 극복하면서 농촌 작업에 항상 앞장서 나갔으며 학습에 력량을 기우렸다. 그는 민청 분조장으로서 기술 보급반의 책임을 지고 자기의 정력과 재능을 다하였다. 완균 동무는 자기의 고향 땅에서 자라는 곡식이나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도 무심히 보고 지내지 않았으며 그의 특성과 자라는 과정들을 세심히 살피고 연구하였다. 그 중에도 그는 조합의 주작물인 벼의 관찰에 각별한 주의를 돌렸다.

그는 함주 100 리'벌을 골고루 돌아 다니면서 우량 종자를 정성껏 수집하였다.

어느덧 넓은 그의 방에는 200 여 종의 벼 종자를 비롯한 각종 작물 종자가 주렁주렁 매달렸다.

그러나 그 종자들은 다 자기의 우결함을 가지고 있었다.

(보다 좋은 벼 품종을 구할 수 없을가?)

완균 동무는 새로운 벼 품종을 찾고 또 찾으면서 안타까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후 민청원들은 완균 동무가 우리나라 고전을 구해 가지고 다니면서 동네 어른들에게 묻기도 하고 열심히 학습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였다.

《갑자기 저 친구가 선비가 될려고 하나?》

어떤 동무들은 때때로 이런 말들을 하였다. 일부 동무들은 우리 선조들의 고귀한 유산에서 자기의 연구 방법을 찾으려는 그의 심정을 잘 리해하지 못했던 것이다.

사실 그의 노력은 헛되지 않았다. 그는 선조들의 고귀한 유산에서 새 다수확 품종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길을 찾았던 것이다. 그것도 현재 품종들보다 무려 배 이상의 수확은 능히 걷을 수 있는 것이였다.

그는 무엇보다도 먼저 자기 집에다 자그마한 온실을 꾸려 놓고 벼'모를 기르기 시작하였다. 어떤 벼'모에다가는 여러가지로 추비도 해 보고 또 다른 것은 담수 방법과 락수 방법도 리용하였다.

그는 침식을 잃고 문'자 그대로 불면 불휴의 투쟁을 계속하였다.

정성이 지극하면 바위 우에서도 꽃이 핀다고 그의 정성과 노력은 헛되지 않았다. 어느날 그는 환성을 지르며 민청 위원장에게로 달려 갔다.

《민청 위원장 동무! 이 벼를 좀 보십시오.》

그가 내 보이는 벼는 과연 한 줄기에서 이삭이 세 개나 돋아 나고 있었다.

그는 끝끝내 자기가 갈망하는 《새 품종》의 벼를 자라게 하는 데 성공하였던 것이다. 첫 성공은 그에게 기쁨을 주고 기쁨은 그에게 힘을 주었다.

그러나 커다란 난관은 그의 앞을 가로 막고 있었다.

그가 온실에서 《세 이삭 벼》를 자라게는 하였으나 실지 생산에 도입할 문제가 어려운 과제로 나섰다. 사실 그는 바늘로 자극을 주는 수공업적인 방법을 배합하여 세 이삭 벼를 기르는 데 성공은 하였으나 실지 생산에 도입할 수는 없는 것이였다.

그는 이 문제를 두고 수다한 노력과 정력을 기우렸으나 이렇다 할 연구 방법조차 찾아 내지 못 하였다.

어느날 군 민청 강습에 갔던 완균 동무는 강습을 끝마치고 군 민청 위원장 동무를 만났다.

그를 반가히 맞아드린 군 민청 위원장은 오래'동안 《세 이삭 벼》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는 동무의 성공에 크게 기대를 걸고 있소.》하면서 난관은 앞으로 많을 것이니 모르는 것은 배우고 막히는 일은 이악하게 노력으로 뚫고 나가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연구에 필요한 몇 권의 책을 선물로 완균 동무에게 주었다. 그 책을 받아 들은 완균 동무는 처음엔 깜짝 놀랐고 기뻐 어쩔 줄 몰랐다.

그것은 벌써 오래 전부터 구하려고 무진 애를 쓰던 귀중한 책들이였다.

5만 명 대렬에 들어 섰다

완균 동무는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굴함 없이 연구 사업을 계속하였다. 바로 이 시기에 있은 민청 제 4 차 대회는 1 차 5 개년 계획 기간에 5만 명의 기사, 기수 대렬에 들어 설 전투적 과업을 청년들 앞에 제기하였다.

대회 결정을 가슴에 새긴 그는 연구 사업을 완성할 것을 결심하고 면밀한 계획을 짰다.



완균 동무의 노력은 배가 되였다. 조합원들은 완균 동무가 언제 자고 일어나는지를 알지 못하였다. 그것도 그럴 것이 그는 밤 1시가 넘고 두시가 넘어도 그날 학습 계획을 다 하기 위하여 학습에 열중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아침 일찍 일어나서는 조기 체조를 하고 남과 같이 일찌기 작업장으로 나오군 하였다.

한 번은 그가 감기에 걸려 며칠 동안 일을 못나간 적이 있었다. 이때 문안을 온 민청 위원장과 그의 동무들은 방안에 들어 서자 어안이 벙벙하였다. 완균 동무는 앓으면서도 책을 손에서 떼지 않고 있지 않는가!

《완균 동무, 너무 무리하지 말라구.》

한참만에 민청 위원장은 이렇게 말을 하였다.

완균 동무는 빙그레 웃으며

《사람이란 조금만 마음을 늦추 잡아도 안일해 지고 게을러 지는것 같애요. 얼마 전에 내가 시험 포전 일이 너무 바빠서 며칠동안 공부를 못한 일이 있었소. 그런데 그후에 자기도 모르게 게을러 질려는 버릇이 생겨 그 버릇을 떼느라고 한참 걸렸소. 그 후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날 학습을 그 날로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소.》

그의 동무들은 이 짤막한 이야기에서 그가 얼마나 완강하게 학습하고 있으며, 얼마나 고심하고 노력하고 있는가를 잘 알 수 있었다.

완균 동무는 학습에서 한 문제라도 허수히 지내 버리는 일이 절대로 없었다.

그는 벼를 연구하기 위해서만도 《식물학 실습》,《벼 재배》, 《토양학》, 《조선의 식물》등 무려 100 여 권의 책을 읽었다. 이것은 또한 기사 자격 시험을 위한 준비로도 되였다.

노력은 첫째라는 말이 있다. 그의 완강한 노력은 꽃피고 열매를 맺어 불과 3 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농산 기사의 당당한 자격을 받았다.

《세 이삭 벼》

벼의 새로운 품종에 대한 연구 사업은 계속되였다. 그는 끝내 《세 이삭 벼》의 품종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내고야 말았다.

과학을 탐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우연한 난관도 부닥쳐 오는 수가 많다.

한번은 벼 종자들을 발아시킬 시기가 거이 닥쳐 왔을 때 400 여 종이나 되는 벼 종자를 귀중히 보관해 둔 선반이 내려 앉으면서 온통 종자들이 뒤섞이고 말았다.

새 품종의 벼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기본으로 되는 것은 종자이다.

그리고 수십년 농사를 전문으로 연구한 동무들도 보기에 비슷비슷한 400 여 종의 벼를 품종별로 골라 내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그는 1 주일 간이나 잠과 식사도 잃다싶히 하면서 수십 만개의 벼알들을 하나하나 품종별로 골라 내였다.

일이 끝나는 날 그는 옆에서 방조하는 동무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이제야 나도 농사'군이 된 듯하오. 400 여 종의 품종을 어김 없이 골라낼 수 있게 되였으니 말이지.》하며 빙그레 웃었다.

그가 처음으로 시험 포전에 《세 이삭 벼》를 기르며 그의 성공 여부를 시험하든 그 해 여름이였다. 그가 가꾸는 시험 포전에서 한 줄기에 세 이삭씩 내밀고 있는 벼들은 마치도 《당신의 노력은 헛되게 하지 않았습니다.》하고 그에게 속삭여 주는듯 하였다.

그의 7 년 간의 피나는 노력과 정력은 드디여 그에게 영광의 날을 가져다 주었다.

1961년 9월 어느 날 자지를 찾아 온 어느 한 간부 동지를 시험 포전에서 만나게 되였다.

《동무가 새로 육성한 이 〈세 이삭 벼〉를 우리 당 제 4 차 대회에 선물로 드리기로 결정하였소.》

《당 대회 선물로요!》

그의 가슴은 기쁨과 감격, 영광과 긍지로 하여 부풀어 올랐다.

완균 동무는 높은 둔덕에 올랐다. 황금 파도 물'결치는 함주라 100 리'벌, 넓은 벌 가운데 흐르는 맑은 성천강, 저 멀리 지평선에 은은한 기적 소리 울리며 달리는 평양행 렬차… 고향의 넓은 벌은 어머니 품인양 그에게는 정다웠다.

그가 키워낸 《세 이삭 벼》는 정보 당 12 톤의 높은 수확을 자랑하면서 가을 바람에 물'결치고 있었다.

… 오동 나무를 곱게 밀어 윤나게 칠을 한 아름다운 표본함에 《세 이삭 벼》를 정중히 포장하는 날 그의 손은 가볍게 떨리고 있었다.

포장이 끝나자 그는 멀리 평양 쪽을 바라보았다.

(경애하는 수상 동지! 당의 부름을 받들고 농촌에 진출한 저는 오늘 제가 육성해 낸 《세 이삭 벼》를 제 4 차 당 대회의 선물로 드립니다.

저는 조선 로동당의 후보 당원의 영예를 지녔으며 고향'벌에서 일하면서 배워 떳떳한 농산 기사로 되였습니다.》

수령의 참된 전사답게 싸운 보람도 높이 앞으로 보다 충직한 당의 붉은 전사가 되기 위한 결의를 다지는 그의 눈'동자는 새'별처럼 빛났다.

본사 기자 하 만춘

언어의 문화성

정 순 기

언어는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이나 사상을 서로 주고 받는 교제의 수단으로써 이것이 없이는 인간 사회의 존재 자체도 불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사람들은 자기의 사상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자연히 말을 다듬어 쓰려고 노력한다.

언어의 문화성을 높인다는 것은 말을 고상하고 정확하게 잘 다듬어서 쓰는 것을 의미한다.

원래 조선어는 세계에서도 가장 발달하고 풍부하고 아름다운 말의 하나이다. 이 말은 조선 인민들의 피어린 노력과 투쟁의 산물이며 그의 귀중한 재산이다.

과거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가혹한 민족 문화 말살 정책이 그렇게 극심하던 시기에도 우리의 애국적 인민들과 혁명 선렬들은 우리 말을 더욱 풍부하게 발전시키고 그의 전통을 고수하기 위하여 투쟁하였으며 오늘에 와서 우리 말은 더욱 빛나게 개화 발전되였다.

때문에 청년들이 우리 말과 글을 사랑하고 언어의 문화성을 높인다는 것은 곧 애국주의 사상의 발현으로 되는 것이다.

저속하고 야비한 말을 씀으로써 우리 말을 더럽히는 것은 영광스러운 길을 걸어 온 우리 모국어에 대한 모독이라 아니할 수 없다.

또한 언어는 그 사람의 품성을 표현한다. 즉 언어의 문화성은 사람을 고상하게 하며 사람들에게 친밀감을 준다.

도덕 품성이 고상한 사람의 언어는 아름다우며 도덕 품성이 고상하지 못한 사람의 언어는 야비하고 저속한 것이 상례이다.

가령 이런 말을 쓰는 청년이 있다고 하자.
《이 자식 눈깔이 없어…》
《되지 못하게, 골통이 돼먹지 못했어…》

이런 말을 쓰는 청년들은 아무리 그의 외모나 옷차림이 좋아도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다. 그것은 짧은 몇 마디 언어에서 벌써 그의 마음씨와 품성을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언어의 문화성을 높이는 것은 우리의 말을 더욱 정화하고 발전시킴에 있어서 우리의 생활과 사업을 위해서, 또한 자기 자신의 도덕 수양을 위해서 참으로 중요한 것이다. 더욱이 문화 혁명 시대에 살며 그 선봉에 서야 할 청년들의 경우에 있어서 언어의 문화성을 높이는 문제는 더욱 절실한 문제이다.

그러면 언어의 문화성을 높이기 위하여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그것은 우선 언어를 고상하고 례절 바르고 아름답게 쓰는 것이다.

우리 인민들은 과거로부터 부모, 선생 및 년장자들과 말할 때 존경의 뜻을 표시하였으며 동무 간에 있어서도 아름다운 언어를 사용했다.

더욱이 우리 나라 말은 세계의 수많은 언어 중에서도 계칭(階稱)이 가장 발달한 언어의 하나이다. 즉 우리 말은 웃사람에게 하는 말이 다르고, 동무들 끼리 하는 말이 다르며 손 아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다르다.

《밥 먹는다》, 《자다》, 《말》, 《말하다》, 《주다》 등의 단어들은 웃사람과 말할 때면 《진지 자시다(잡수시다)》, 《주무시다》, 《말씀》, 《아뢰다.(엳주다)》, 《드리다》 등으로 쓰게 된다.

때문에 이런 말을 잘 알고 써야만이 그 사람의 말이 례절 바른 말이 되며 또한 품위도 있게 된다.

그러나 《어머니, 진지 잡수셨습니까?》하고 말할 대신 《오만 밥 먹었어?》하고 말 한다면 도덕상은 물론 듣기에도 어색하고 거북할 것이다.

이러한 사정은 동무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다. 흔히 친한 동무들끼리라 하여 야비하고 속된 말들을 하는 것을 듣게 된다.

오래간만에 만난 친구와 인사할 때도 《이 새끼 난 뒈진 줄 알았더니》라고 말한다면 친구라는 사람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옆에 있는 사람도 듣기가 거북할 것이다. 원래 야비한 악담과 폭언은 자본주의와 봉건 전제 제도 하에서 폭군들과 착취 계급들이 근로 인민들을 동물과 같이 천대하던 과정에서 산생된 것이다. 이것은 우리 인민의 아름답고 문화적인 말과는 하등의 인연도 없으며 반드시 극복되여야 한다.

다음으로 언어의 문화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표준어를 써야 한다. 아직도 우리 언어 생활에는 말의 뜻이 잘 통하지 않는 사투리가 사용되고 있다.

례를 들면 《아지미(형수), 바까니(남정들), 안까니(가정 부인들), 질(길)》 등을 들 수 있다. 이런 언어들은 처음 듣는 사람들에게 누구를 두고 하는 말인지, 무엇을 가리켜 하는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왕왕 실수와 웃음'거리를 만들어 내는 수가 있다.

이런 웃으운 이야기가 있다.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고향이 서로 다른 두 동무가 채소 밭에서 일을 하였다. 휴식 참에 한 동무가 친구에게 《거, 무끼 (무우의 사투리)줍세.》라고 말하였다.

그의 친구는 한참 두리번 거리다가 매끼를 집어 주었다. (평안도 일부 지방에서는 《매끼》를 《무끼》라고도 한다.)

그러자 처음 동무는 하는 수 없이 무우 더미로 가더니 《이게 무끼지 그게 무낀가?》라고 말하였다.

보는 바와 같이 사투리는 사상을 교환하고 교제하는 데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듣기에도 거북하다.

매개 나라 말에 표준어가 있는 것과 같이 우리 나라 말에도 그 누구나 알 수 있으며 듣기도 좋은 표준어가 있는데 사투리를 쓴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그러므로 표준어를 쓰기 위하여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표준어를 잘 학습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청년들은 까다로운 외래어나 한'자어를 람용하는 것을 없애야 한다.

우리 나라 언어는 다른 어떤 나라 말로도 표현하기 어려운 것들을 감정에 마추어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다.

례를 들면 붉은빛 한 가지를 표현하는 말로도 붉다, 빨갛다, 뻘겋다, 새빨갛다, 불그스름, 발그스름, 불그레, 발그레 등 여러 가지가 있다. 또 손으로 만져 보고 표현하는 말에도 매끈매끈, 거칠거칠, 미끈미끈, 울퉁불퉁 등 얼마든지 자세하고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언어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일본 말이나 외래어, 어려운 한문들을 섞어 씀으로써 우리의 언어를 비속화하고 가치를 떨구는 경우가 많다.

례하면 《줄칼》, 《짜개 못》, 《지리'대》 등을 《야스리》, 《와리뼁》, 《빠루》라고 쓰고 있다. 이러한 실례는 적지 않다. 청년들은 까다롭고 힘든 말, 우리 말 아닌 외래어를 람용하는 것을 반대하며 아름다운 우리의 말을 더 잘 쓰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끝으로 말은 문법과 그 뜻에 맞게 써야 하며 온갖 군더더기를 뽑아 버리고 간결하고 명확하게 써야 한다. 그래야만 이야기하려는 사상이 잘 전달될 수 있다. 흔히 말하는 도중에 생각이 잘 나지 않아 군더더기를 붙이는 것을 듣게 되는데 이 군더더기가 습관이 되여 버린 사람도 있다.

《뭣인가 하니 군에서말이야 기술 강습이 있는데 말이야… 뭣인가 하니 농산, 축산학을 배워 주는데 말이야…》라든가, 《내 이거 강조합니다…내 이거…》, 《문제의 본질은…문제는…》 등의 기다란 군더더기를 덧붙여 놓으므로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말하는 사상의 본질과 강조하려는 그 내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없게 한다.

언어는 간결하면서도 정확해야 하며 명확해야 한다. 장황하게 늘어 놓는 말은 듣는 사람에게 지루감을 주며 실증을 준다.

언어의 문화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꾸준하고도 인내성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자기의 언어, 동무들의 언어에 대하여 항상 주의를 돌리고 틀린 점은 의식적으로 고치며 바로 잡아 주어야 한다. 동시에 언어 수양을 높이기 위하여 선배들이 쓴 훌륭하고 아름다운 말을 학습하며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기에 힘써야 한다. 배우지 않고서는 일보도 전진할 수 없으며 틀린 말도 바로 잡을 수 없다.

(속)(담)

★ 쌀은 쏟고 주어도 말은 하고 못 줏는다.

★ 말이 아니면 듣지 말고 길이 아니면 가지 말랑.

★ 쓰나 다나 말해야 한다.

무기 제작의 력사

김 皿 식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이룩한 우리 선조들은 과학 기술 분야에서도 많은 훌륭한 업적들을 쌓아 놓았다.

무기의 발명과 그 발전을 위한 우리 조상들의 노력과 성과는 이러한 업적들 중의 하나로서 우리 인민이 이어 받은 귀중한 문화 유산이다.

오랜 옛날부터 우리의 조상들은 외래 침략자들로부터 나라의 독립과 안전을 고수하기 위한 수 많은 전쟁을 하지 않으면 안 되였다. 산 좋고 물 맑은 우리 나라의 풍요한 물산을 탐내여 침입해 오는 외래 침략자들을 성과적으로 물리치기 위해서는 강력한 무장력을 소유하여야 했으며 이러한 무장력을 가추는 데 있어서 성능이 좋은 각종 무기를 가지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였다. 우리 선조들은 다른 모든 요인들과 함께 침략자들에 못지 않는 우수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전쟁들에서 매 번 승리하였다.

이미 원시 시대에 생활 자료 획득과 맹수 및 이웃 씨족 집단들의 침해로부터 자기 씨족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발명된 활과 화살을 비롯한 각종 무기들은 계급 사회로 들어 오면서 계속 개량 발전되여 갔으며 이러한 무기를 다루는 기술도 더욱 익숙하여졌다. 고대 우리 나라의 활은 맥궁 (貊弓)이라는 이름으로 린근 일대에 널리 알려져 있었는데 활이 크고도 힘이 세여서 화살이 멀리까지 날아갈 수 있었다.

우리 나라에서의 첫 봉건 국가들인 고구려, 백제, 신라의 3 국은 선행 시기의 무기를 계승하여 한층 발전시켰다.

이 시기의 주요한 공격 무기는 활, 창, 칼 등이였으며 방어 무기는 방패였다. 3 국의 군인들은 말을 달리면서 이러한 무기들을 자유로히 사용할 줄 알았다. 고구려 무덤 벽화들에는 말을 달려 활을 쏘며 사냥하는 그림이 있는데 이런 것들로 미루어 보더라도 당시 사람들이 자기들이 사용하는 무기에 얼마나 정통하고 있었는가를 넉넉히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무기는 남자들 뿐만 아니라 녀자들도 잘 쏠 줄 알았다.

3 국 시기의 무기에 관하여 자세한 것은 알 수 없으나 한(漢) 나라를 비롯한 대륙의 여러 나라들과의 빈번한 싸움에서 침략자들을 성과적으로 물리쳤을 뿐만 아니라 국토를 확장해 나간 력사적 사실들로 미루어 당시 우리 나라의 무기는 동방 제국 중의 그 어느 나라에 비해서도 못지 않는 형편에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6 세기 말 신라의 우수한 기술자 신득(身得)은 종전의 활을 개량하기 위한 꾸준한 노력 과정에서 돌이나 화살을 쏠 수 있는 포노(砲弩)라는 무기를 창안 제작하였다. 활은 지금의 새총의 원리와 마찬가지로 활'줄이 든든하고 당기는 힘이 강해야 더 멀리 갈 수 있으며 쏠 때 흔들리지 않아야 목적물을 더 정확히 마칠 수 있다. 그런데 종전에는 활을 손에 잡고 한 손으로 당겨 쏘았지만 포노는 땅에 놓고 화살을 쏘게 되여 있어서 손으로 쏘는 활보다 더 크고 따라서 당기는 힘이 세여 화살이 멀리까지 갈 수 있었으며 고정되여 있음으로 더 정확하였다.

또한 이 무기는 화살 뿐만 아니라 돌로 쏠 수 있다는 점에서 종전의 것들보다 훨씬 우수한 무기였다.

이 무기는 6 세기 신라가 령토를 적극적으로 넓히며 연해 지방을 침범하는 왜구를 성과적으로 격퇴함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하였으며 또 그러한 필요에 의하여 창안된 무기였다.

신득이 포노를 창안한지 약 100 년 후인 7 세기 중엽에 신라의 애국적인 무기 기술자 구진천(仇珍川)이 종전의 무기를 더욱 개량하여 천보노(千步弩)라는 목노(木弩)를 발명하였다.

천보노는 포노와 마찬가지로 화살이나 돌을 쏠 수 있는 무기였으나 그 성능은 포노보다 훨씬 위력하였다. 천보노는 쏜 화살이나 돌이 천 발'자국 즉 매우 멀리까지 날아 가서 목적물을 칠 수 있다는 데서 그런 이름을 부친 것이다.

구진천이 천보노를 발명한 시기는 바로 신라가 당나라 침략자들을 격퇴하고 국토를 통일하기 위하여 백제, 고구려의 유민(遺民)들과 함께 간고하고 장기적인 전쟁을 한참 진행하고 있을 때였다. 적에게는 없는 이 강력한 무기는 침략자들과의 싸움마다에서 그 위력을 발휘하였고 끝내 신라가 침략자들을 성과적으로 물리치고 백제 전 지역과 고구려의 남부 령역을 통일함에 있어서 크게 기여하였다.

때문에 나라에서는 구진천의 애국적 창작을 높이 평가하고 그에게 사찬(沙湌) 이라는 벼슬까지 주었다.

이러한 강력한 무기가 자기 나라에는 없는 것을 못내 아쉬워하던 당 나라는 669년에 구진천을 초청하여다가 극진히 대접하면서 그에게 목노를 만들게 하였다. 구 진천은 어쩔 수 없이 목노를 만들기는 하되 겨우 30 보 밖에 더 못가는 것을 만들었다. 당 나라 황제가 이것을 추궁하자 구 진천은 당 나라 재목이 신라 재목보다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당 나라는 급히 신라 목재를 구해 오게 하여 그것으로 다시금 구 진천에게 목노를 제작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번에도 만든 무기는 겨우 60 보 밖에 가지 않았다.

당 나라 황제가 그 리유를 추궁해 묻자 구 진천은 자기로서도 똑똑한 원인을 알 수는 없으나 아마도 재목이 바다를 건너 오는 동안에 해풍에 습기가 찬 때문인 듯 하다고 서슴 없이 대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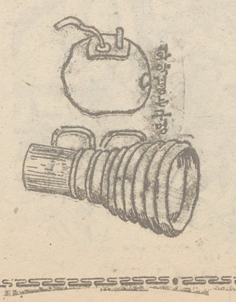
당시 당 나라는 동방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였으며 더구나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신라를 강점하려고 전쟁을 계속하였었다. 그들의 이러한 침략 기도는 아직은 완전히 없어졌다고 말할 수 없었다. 구 진천은 신라만이 가지고 있는 천보노의 비밀을 이러한 당 나라에 알려 줄 수 없었다. 그 후 당 나라에서도 구 진천의 이러한 애국적 절의를 짐작하게 되였고 갖은 위협과 회유로 그를 달래 보았으나 구 진천은 나라의 비밀을 끝내 고수하였다.

신라에는 일정한 기술 병종들이 있었는바 례하면 돌팔매를 담당한 석투당(石投幢), 성과 파괴를 담당한 충당(衝幢), 노를 쏘는 부대인 노당(弩幢), 성 밖으로부터 높은 성벽에 기여 오르기 위한 긴 사다리를 가진 부대인 운제당(雲梯幢) 및 기타 등이 그것이였다.

이러한 기술 병종들은 그에 해당하는 전문적인 무기를 가지고 있었다. 이런 기술 병종은 비단 신라 뿐만 아니라 고구려와 백제에도 있었던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무기의 발전과 함께 이러한 기술 병종 조직은 고려 시기(918—1392)에 이르러 더욱 발전되였다. 고려 시기에는 륙군에서만 보더라도 보병, 기병, 들격조, 라팔수 외에 저격 무기인 활 쏘기를 전문으로 하는 사궁(射弓), 경궁(梗弓) 부대와 노 쏘기를 전문으로 하는 정노(精弩), 강노(剛弩) 부대를 비롯하여 적들이 포차(砲車), 루차(樓車), 목상(木床) 및 기타 무기로 성벽에 접근하여 올 때 이를 성과적으로 무찌르기 위하여 쇠'물을 끓여 들씌우는 철수(鐵水) 부대, 불을 질러 태워 버리는 발화(發火) 부대 등이 있었다. 1231년 몽고(원—元)침략자들이 구주성(구성)을 포위 공격했을 때 박 서 장군 지휘 하의 성내 군민들이 적은 인원으로 강력한 공성 무기를 가진 적들의 맹공격 앞에 굴함 없이 싸워 전쟁 력사상 류례 없는 대 승리를 달성한 것도 애국적 고려 군민들의 영웅적 투쟁과 함께 바로 고려의 무기가 우월하였기 때문이며 우에서 말한 바와 같은 기술 병종들의 편성이 위력을 발휘한 결과였다.

14 세기에 들어 오면서 우리 나라에 대한 일본 해적들의 침입은 더욱 빈번하여 갔다. 특히 1350년 이후 왜적들은 당시 우리 나라의 형편이 곤난한 틈을 타서 해안 지역 뿐만 아니라 내륙 깊이 기여 들어 갖은 만행과 략탈을 감행하였으며 이 때문에 인민들은 큰 고통을



비격 진천뢰

이 무기는 둥그런 철관속에 화약을 가득히 넣고 불을 붙이면 우뢰소리를 내면서 폭발함과 동시에 철관이 파편이 되여 날아 위력을 발휘하는 무기이다. 비격 진천뢰는 120근 정도의 진천뢰를 대완구(大碗口)라는 큰 포에다 장전하여 발사하면 5~6백보의 지점에 가서 떨어지면서 폭발하는 위력 있는 무기이다.

받고 있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최 무선(崔 茂宣)에 의하여 강력한 화약 및 각종 화약 무기들이 발명 제작되였다. 그에 의하여 제작된 화약 무기들은 백병전을 위주로 하던 당시에 있어서 실로 우리 나라 무기 발전 사상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온 거대한 사변이였다.

최 무선은 1326년에 경북 영주(永州—영천)에서 출생하였다. 그는 자라나면서 왜구의 피해가 매우 심한 것을 목격하게 되였으며 이러한 나라의 형편은 그로 하여금 강력한 무기를 창안 제작하여 적을 성과적으로 무찌를 수 있게 하려는 애국적 결의를 다지게 하였다. 그후 그는 20 여 년의 꾸준한 노력과 거듭되는 실험 끝에 마침내 화약의 원료인 염초(硝焰)제조법을 알아 내는 데 성공하였다. 당시 염초는 오래된 큰 가옥의 마루 밑에 앉은 먼지를 고아서 얻어 냈다.

최 무선은 이에 계속하여 화약을 리용하는 각종 화통(火筒), 화전(火箭), 화포(火砲)들을 만들었으며 이러한 화약 무기를 장치할 수 있도록 군함의 구조도 개조하였다. 화통은 불을 뿜는 무기로서 총통(銃筒) 이라고도 하였고 화포는 화전을 장탄하여 쏘면 그것이 꽂히는 곳에서 폭발하여 불이 나게 하는 무기였다. 이러한 화약 무기들은 적선에 불을 질렀을 뿐만 아니라 폭발할 때 굉장한 폭음을 내게 됨으로 이런 무기를 아직 모르던 왜적들에게 있어 공포의 대상으로 되지 않을 수 없었다.

최 무선은 자기의 연구 결과를 가지고 실험한 후 이를 대량 제작할 것을 나라에 수차 제기하였다. 봉건 국가에서는 드디여 1377년에 화통 도감(火桶都監)을 설치하고 최 무선을 그 제조관(提調官)으로 임명하여 화약 및 화약 무기를 대량적으로 만들게 하였는바 이때 그는 대장군포(大將軍砲) 2장군포, 3장군포, 대화석포, 화포, 신포 등 각종 포와 철령전(鐵翎箭), 철탄자(鐵彈子) 등 각종 무기를 제작하였다.

애국적인 화약 및 화약 무기 기술자 최 무선의 탁월한 기술은 그의 아들 최 해산(崔 海山)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되였다.

최 해산은 15 세기 초에 와서 화약 무기를 정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이 같이 강력한 무기는 15 세기 우리 나라의 발전과 국토 완정을 위하여 크게 기여하였다.

16 세기 말에 있은 임진 조국 전쟁은 조선 인민이 당한 가장 큰 국난 중의 하나였는바 왜적을 무찌르기 위하여 한 덩어리로 뭉친 애국적 인민들 속에서는 많은 새로운 무기들이 창안 제작되였다.

당시의 화약 무기 기술자 리 장손(李 長孫)은 이미 그 이전부터 사용해 오던 진천뢰를 더욱·발전시켜 비격 진천뢰(飛擊震天雷)라는 무기를 창안 제작하였다. 진천뢰는 철관(鐵罐) 속에 화약을 다져 넣고 불을 달면 우뢰와 같은 큰 소리를 내면서 폭발하는 동시에 철관의 파편이 날아 위력을 나타내는 무기였는데 비격 진천뢰는 약 120 근의 진천뢰를 대완구포(大碗口砲)에 장탄하여 쏘면 500~600 보 지점까지 멀리 가서 폭발하는 강력한 무기였다. 이 무기는 1592년 9월 경주 해방 전투에서 그 위력을 남김 없이 발휘하였다.

또한 이 때 변 의중(邊以中)은 새로운 강력한 무기인 화차(火車)를 발명하였다. 큰 수레를 철판으로 둘러 싸서 적탄을 막게 하고 철판 벽에는 40 여 개의 총구멍을 뚫어 거기로부터 계속 불을 달아 총을 쏘도록 장치가 되여 있어 적진 속으로 굴러 가면서 공격하기에 매우 유리하고 위력 있는 무기였다. 이 무기는 1593년 행주산성 싸움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여 큰 위력을 발휘하였다.

최 무선에 의하여 우리 나라 무기 발전 사상에서 이룩한 획기적인 전변은 이같이 외래 침략자들을 격퇴하기 위한 전쟁 행정에서 재능 있는 선조들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 발전되여 갔다.

우리 나라 고대와 중세기에 걸친 무기는 물론 현재에 와서 보면 유치한 수준에 머물러 있었으나 당시로서는 매우 위력한 것이였고 이러한 무기의 발명과 제작은 그 나라의 과학 기술 수준을 반영하는 것만큼 우리 나라 고대와 중세기의 무기가 높은 수준의 것이였다는 것은 그만큼 당시 우리 나라 문화가 매우 높은 수준에서 발전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홍의 장군 곽 재우

박 영해

때는 1592년 4월 13일 일본 침략자들은 19만 5,000 여 명의 륙군과 9천 여명의 해군을 동원하여 불의에 우리 나라로 침략해 왔다.

왜 나라의 관백(關白)이였던 풍신수길은 조선을 강점하고 나아가서는 중국 대륙까지 점령할 주제 넘은 망상을 가지고 자기의 군대에게 전격적인 공격을 명령하였다.

원쑤들이 지른 전쟁의 불'길로 하여 조국의 운명은 커다란 위기에 직면하게 되였다. 이러한 국난의 시기에 국방에는 아랑곳 하지 않고 토지와 권세만을 탐내여 당쟁에만 눈이 어두워 있던 무능한 봉건 관료배들은 일신의 안위만을 위하여 나라와 백성을 버리고 도망치기에 바빴다.

그러나 애국적인 인민들만은 조국을 지켜 왜적을 막아 일어 섰다. 이렇게 임진 조국 전쟁이 시작되였다.

침략자들은 조선의 땅과 바다—이르는 모든 곳에서 인민들의 강렬한 항거에 부디쳤으니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에서 조선 군인들과 의병들이 궐기하여 왜적을 무찔렀고 리 순신 장군은 한산도에서 왜놈들의 수군을 바다 속에 처넣었다.

이러한 때 기름진 호남 지방에로의 적들의 침습을 저지시키고 이녕(宜寧), 거창(居昌), 고령(高靈) 등지에서 번개처럼 번뜩이며 침략자들을 전률케하던 의병 부대가 있었으니 그는 바로 홍의 장군(紅衣 將軍) 곽 재우(郭 在佑)가 지휘하는 의병이였다. 곽 재우 의병 부대의 눈부신 활동에 의하여 호남의 기름진 땅과 인민들의 생명, 재산이 수호되였고 임진 조국 전쟁 전 기간 침략자들은 락동강에서 지방으로는 침습하지 못하였다.

홍의 장군—곽 재우는 탁월한 전략 전술가였으며 임진 조국 전쟁 시기 우리 인민이 이룩한 슬기로운 애국 전통을 더욱 빛내인 의병장의 한 사람이였다.

곽 재우는 경상남도 이녕 사람으로 자는 계수(季綏)이고 호는 망우대(忘憂堂)였다.

의지가 굳고 영예감이 강한 그는 부친 곽월의 임지를 따라 다니면서 학습으로 청소년 시절을 보내였다. 그는 항상 몸차림을 단정히 하였고 부모들을 극진히 존경했으며 웃사람들을 존경하여 마을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다.

그의 아버지는 장군에게 어린 시절부터 왜적을 반대하여 싸운 인민들의 영웅적 투쟁을 즐겨 이야기하여 주었다. 그리하여 나어린 곽 재우 장군의 심장 속에는 일찌기 유년 시기로부터 조국을 위하여 목숨 바치려는 애국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하였다.

장군은 어려서부터 총명이 뛰여나고 도량이 넓어서 하는 일마다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다. 글 읽기를 좋아하는 한편 활 쏘기, 말 달리기 등 군사 놀음을 좋아하였는데 동리 아이들 중에서도 언제나 도장수가 되였다.

청년 시기에 들어 서면서 곽 재우 장군은 더욱 력사, 철학, 문학 등 서적들을 탐독했으며 병법을 깊이 연구하였다.

원래 학문에 조예가 깊은 그는 청년 시절에 벼슬 길에도 오를 수 있었으나 부귀와 공명, 출세와 명예를 탐내지 않는 성질인 그는 당시 봉건 통치배들의 당쟁으로 어지러워진 정사와 인민들에 대한 그들의 가렴주구를 질시하여 벼슬살이를 단념하고 고향에서 삿갓에 짚신 차림으로 청렴한 생활을 하였다.

고향 땅에서 전란을 당하게 된 그는 군사를 모아 조국 땅을 수호할 대신 진지를 버리고

도망치는 량반 통치배들에 대한 분노를 억제할 수 없었다.

그는 《중대한 사명을 지닌 지방 장관들은 국가 존망도 생각지 않고 도리여 저만 살려고 도망치니 이때 우리 백성들이 죽음으로 나라를 구하는 수 밖에 없다》고 호소하고 이에 호응하여 나서는 지방 군사들과 인민들로서 의병을 조직하였다. 그는 자신의 가산마저 흔연히 털어 바치여 의병 부대의 군비에 충당하였다.

인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곽 재우 장군의 의병 부대는 경상도 수륙 교통의 요충인 정 나루(의령 진주 남강의 하류)를 장악하고 여기에 주둔하여 신묘하고 과감한 유격 전술로써 락동강을 넘나드는 적들에게 계속적인 타격을 주었다.

그의 높은 명성과 더욱이 그의 높은 애국적 정열에 고무된 인민들은 너도나도 곽 재우 의병 부대에 참가하였고 비굴하게 도망치려던 봉건 관료배들까지도 이에 합류하게 되였다.



그는 나라를 사랑하는 불타는 마음 이런듯 항상 붉은 갑옷을 입고 다니였다.

은백색 백마를 타고 달릴 때 휘날리는 그의 붉은 옷깃은 의병들을 영웅적인 투쟁에로 고무하는 기치로 되였으며 동에 번쩍 서에 번쩍 붉은 갑옷이 나타나는 곳마다에서 침략자들은 무리로 녹아났다. 이로부터 공포에 질린 왜놈들은 그를 천강 홍의 장군(天降紅衣將軍)(하늘에서 내려 온 붉은 옷 장군이란 뜻)이라고 불렀다.

한번은 적장 모리(毛利)란 자가 호남 지방을 한꺼번에 쳐먹겠다고 큰 소리 치면서 정진(鼎津)에 도착하였다. 적들은 기강(岐江)을 건느기 전날에 도하 지점에 막대들을 꽂아 표식해 두고 다음 날 건늘 작정을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을 미리 알아차린 곽 재우 장군은 그 강에 꽂힌 막대를 전부 뽑아 물이 깊은 곳에 옮겨 꽂아 놓고 그 주변에다 복병을 조직하였다. 적들은 이런 것을 알 리 없었다. 다음 날 이 곳에 도착한 적들은 멋도 모르고 강을 건느려다 전부 물속에 빠져 허우적거렸다. 바로 이 때를 기다리고 있던 우리의 복병들은 크게 함성을 지르며 불의의 기습전을 전개하였다. 기강의 푸른 물은 적들의 피로 붉게 물들었으며 적들의 시체가 덧쌓여서 흐르지 못하겠금 되였다.

이에 약이 오른 왜적들은 대대적으로 군대를 동원하여 재차 공격하여 왔다. 이와 같은 적들의 기도를 민감하게 알아차린 곽 재우 장군은 교묘한 유인 전술로서 적을 섬멸할 결심을 채택하였다.

곽 재우 장군은 날랜 용사 10 여 명에게 자기와 같은 차림인 붉은 옷에 흰말을 타게 하고 약간의 군사를 주어 이쪽저쪽으로 달리면서 적을 유인하게 하였다. 처음에는 홍의 장군이 나타났다고 질겁하였으나 군사가 적은 것을 보고 그들을 추격하였다. 그러자 적을 유인하던 그 소조는 구름처럼 사라지고 다음 계선에 이미 매기하고 있던 유인조가 역시 붉은 옷에 흰말을 탄 장군을 앞장 세우고 나타났다.

적들은 다시 추격하고 보면 다음 계선에도 같은 모양의 홍의 장군이 또 나타났다. 그야말로 이쪽에서도, 저쪽에서도 홍의 장군이 나타났다. 그 바람에 적들은 완전히 얼혼이 나갔다.



곽 재우 장군은 이렇게 적들을 혼란시켜 놓은 후 골짜기에 몰아 넣고 전후 좌우에서 맹사격을 퍼부어 전멸시켰다. 이 패배를 만회해 보려고 적장 모리는 다시금 13 척의 배를 이끌고 기강으로 기여 들었으나 성주(星州) 안언역(安彦驛)에서 또다시 수치스러운 참패를 당하고 말았다.

그 당시 적들은 곽 재우 장군의 이름만 들어도 치를 벌벌 떨었다. 그에 대해서는 이런 이야기가 있다. 경상도에서 곽 재우 의병 부대가 무적의 힘으로 장성함에 따라 이에 겁을 먹고 적들은 현풍, 창녕, 령산 등지에 방대한 무력을 주둔시켰다.

곽 재우 장군은 락동강 좌안의 인민들을 해방하기 위하여 현풍성에 대한 출격을 단행하게 되였다. 그런데 현풍성에는 수'적으로도 우세한 적들이 웅거하고 있는데다가 그 방비가 강하여 좀처럼 접근할 수 없었다.

곽 재우 장군은 성내의 적을 성 밖으로 유인하여 유리한 지점에서 격멸할 결심을 채택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야밤 중에 수십 명의 대원을 선발하여 현풍성 뒤의 비파산에 올려 보내여 봉화를 올리고 함성을 지르게 하였다. 그리고 어느 캄캄한 밤 성 부근 가까이에 접근하여 앞 뒤'산에 봉화를 올리면서 《홍의 장군이 래일 성을 전멸시킬 것이니 너희들은 후회하지 말아라》고 웨쳤다.

적들은 《홍의 장군》이란 말에 질겁하였다. 놈들은 새벽녘에 성 밖으로 기여 나와 앞을 다투면서 공무니를 빼기 시작하였다.

이미 때를 기다리고 있던 의병들은 적군에 대한 기습전과 추격전을 전개하여 수다한 적을 살상하였다.

1597년 8월 지난 날의 쓰라린 참패에도 불구하고 재차 우리 나라에 침입한 적장 청정은 수 많은 병력을 동원하여 경상 좌도를 공격하여 왔다. 이리하여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의 일부 성들은 함락되고 호남 지방은 침략의 위협을 받게 되였다.



이때 곽 재우 장군은 의병 부대를 거느리고 창녕 대왕성을 방어하고 있었다. 적들은 하루에도 수십 차씩 공격하여 왔으나 의병들은 무비의 영웅성을 발휘하여 번번히 격퇴하고 끝내 성을 지켰다.

이리하여 곽 재우 의병 부대는 불굴의 영웅적인 투쟁으로써 임진 조국 전쟁의 전 기간을 통하여 락동강 이서 지역에로의 침략군의 침습을 완전히 저지시킬 수 있었다.

장군의 탁월한 군사 전략에 대하여 당시의 최철사 리 원익은 《지금 우리 나라에 당신과 같은 장수가 있으니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라고 하였고 문인 리 호민은 다음과 같이 노래하였다.

듣건데 홍의 장군이
왜적을 노루처럼 쫓았더라!
나라 위해 힘 다하기를
옛날의 어
진 장수 같아라!

의병 투쟁 전 기간을 통하여 크고 작은 수십 번의 전투에서 그가 세운 혁혁한 위훈은 우리 조국의 력사에 길이 빛날 것이다.



전야에서 화학의 힘



농업 과학 위원회 농산학 연구소 계 형 기

바야흐로 우리 나라 농촌은 화학화 시대에 본격적으로 들어 서고 있다.

농촌 화학화—이것은 전기화, 기계화와 함께 농민들을 고된 로동에서 해방시키며 농촌 경리를 발전시킴에 있어서 결정적 역할을 논다.

새로운 《영양제》들

예나 지금이나 농사에서 중요한것은 땅을 걸구고 수확을 많이 내는 것이다.

인류는 이것을 위하여 수 많은 《영양제》를 만들어 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화학 비료가 그것이다.

오늘 농촌 화학화의 전진에 따라 새로운 《영양제》들이 계속 생산 공급되고 있다. 특히 우리의 과학 기술은 우리 나라 토양에 가장 적합하고 그 질도 높으며 생산 원가도 적은 화학 비료를 만들어 내는 문제를 계속 해결해 나가고 있다.

그 중 몇 가지를 들어 보자. 질소 비료인 안모니야수는 알카리성 비료로써 산성화된 땅을 중성화시켜 개량해 주며 토양 내 질소 양분을 공급해 줌으로써 땅을 비옥하게 한다. 뿐만 아니라 류안 비료와 같은 량의 질소 성분을 가지면서도 생산 원가는 2~3 배나 적게 든다.

특히 우리 나라에서 새로이 생산되고 있는 뇨소 비료의 의의는 크다. 뇨소 비료는 중성



비료로써 농경지에 해를 주지 않으며 질소 양분이 류안이나 석질에 비해 무려 2.2 배나 더 많다. 더구나 그 질소 양분이 작물에 곧 흡수되여 인차 담백질로 변하며 탄산이 46.6%나 함유되여 있음으로 땅의 성질도 퍽 좋게 하여 준다. 또한 질소분이 많다는 것은 적은 량으로도 작물이 요구하는 수요를 충당할 수 있음으로 수송, 포장, 보관에도 유리하며 사용에도 편리하다. 이 밖에도 우리 나라 현무암 지대에 적합한 류린안 비료며 모래 땅에 알카리성 비료로써 특효인 용성린 비료, 석회석을 대대적으로 리용하는 조건 하에서 요구되는 미량 원소 비료들이 새로 생산되여 광범히 시비되고 있다.

여기에서 문제로 되는 것은 이 모든 화학 비료의 성질을 정확히 알고 과학적인 화학 비료 시비 체계를 수립하여 그 효력을 백방으로 높이는 것이다. 례하면 원래 화학 비료는 밭갈이 할 때 조금 주고, 김매기 할 때 좀 더 주고, 열매 맺는 시기에 많이 주어야 그 효력을 제대로 내게 할 수 있는데 이와 반대로 하는 현상이 있다. 또 부분적으로는 비료의 성질을 잘 모르는 데서 농작물에 해를 주는 수가 있다. 례하면 금년도에 많이 사용한 암모니야수는 분무기 갈구리를 땅에 잘 박고 비료를 묻어 주어야 한다. 만일 그것을 공기 중에 발산시킨다면 작물을 질식시키고 지어는 타 죽게까지 하는 것이다.

전야에 나타난 《하늘 소》

동무들은 옛'이야기 《콩쥐, 팥쥐》를 알고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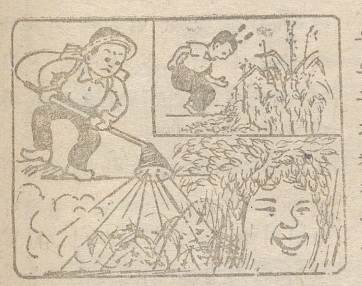
거기에는 김을 매지 못해 울고 있는 콩쥐를 돕기 위하여 하늘에서 황소가 내려 와 삽시간에 김을 매 주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힘든 김매기를 하지 않고도 풀을 저절로 없앨 수 없겠는가?》하는 것은 우리 농민들의 오랜 숙망이다.

이 숙망은 오늘 우리 시대에 와서 실현되고 있다. 《하늘 소》를 대신하여 살초제가 전야에 나타났다. 물론 잡초를 제거하는 데는 기계적인 방법, 생물학적 방법, 화학적 방법 등 여러가지가 있다. 그 중에서도 화학적 수단이 결정적 의의를 가진다. 이것이 바로 살초제이다. 살초제는 지금으로부터 약 20 년 전에 연구되기 시작하였으며 지금에 와서는 그 종류만 하여도 50 종에 달한다. 살초제에는 풀을 다 죽이는 전면성 살초제가 있으며 (례하면 피, 씨, 피—이 살초제는 작물까지 죽임으로 모내기 전에 잡초를 제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잡초의 일부만 죽이는 선택성 살초제가 있다. 여기에는 쌍자엽 식물 즉 황새냉이, 방동산이, 물달개비, 쇠'털꽃 등을 죽이는 2.4—디와 바랭이를 잘 죽이는 심아진, 돌피를 잘 죽이는 디, 씨, 피, 에이, 등이 있다.

피, 씨, 피는 모내기 전에 정보당 10~15 키로그람을 1,000 리터의 물에 타서 뿌려 주면 80 % 이상의 잡초를 제거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약효는 약 한 달 밖에 가지 못한다. 그러므로 벼아지 치기가 끝나는 즉시에 (그 이전에 주면 벼의 아지 치기에 지장을 준다) 살초제 2.4—디를 뿌려서 잡초를 제거한다.

그리고 심아진은 옥수수 밭 잡초를 없애는 가장 좋은 살초제이며 디, 씨, 피, 에이는 잡초 중에서도 가장 《악질적》인 돌피를 죽인다.



이와 같이 우리는 살초제의 도움으로 농촌 로력의 거이 30%를 차지하는 제초 작업을 화학 수단으로 해결하게 되며 농민들은 고되고 힘겨운 김매기 작업에서 해방되게 될 것이다.

살초제 사용에서는 기술 지표를 준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여기에 《웃으운》 이야기가 하나 있다.

작년에 처음으로 2.4—디 살초제를 사용하던 어떤 조합에서 있은 일이다.

일부 조합원들 가운데서는 구구한 의견들이 나왔다. 그것도 그럴 것이 물 1,000 리터라는 거대한 량에다가 살초제 0.5~0.6 키로 그람라는 적은 량을 풀고나니 얼핏 보기에는 《맨물》과도 같았다. 《맨물》 같은 것이 한 정보라는 넓은 땅의 잡초를 죽인다 하니 쉽사리 믿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살초제를 더 많이 풀어 넣자고 욱다짐까지 해 나섰다 한다.

그런데 2.4—디 살초제는 도수가 넘으면 벼의 성장에 지장을 주며 반대로 너무 적게 살초제를 푼다면 오히려 잡초를 무성하게 만드는 것이다.



더 빨리 자래울 수 없는가?

동무들은 어릴적에 오이밭에서 이런 노래를 부른 일이 없는가?

오이 꽃이 피였네.
열매가 달렸네.
빨리빨리 자라라.
한 자 두 자 자라라.

사람들은 농작물을 가꿀 때마다 그것을 단숨에 자래울 수 없는가고 공상하게 되였다.

화학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이것이 식물 자극제이다. 자극제는 농작물의 생장을 촉진시키는 것도 있고 늦추게 하는 것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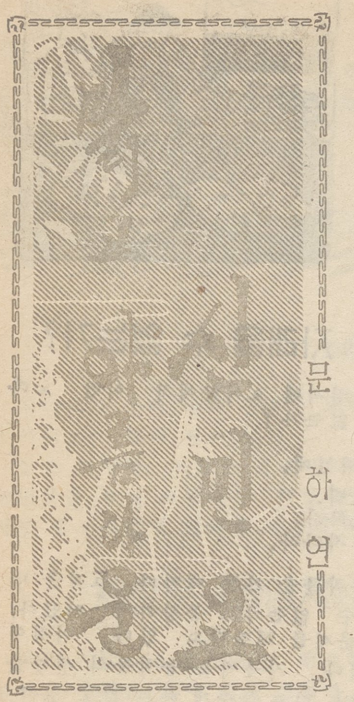
농작물의 생장을 촉진시키는 자극제에는 기베렐린, 알화 나후질 초산, 2.4,5—티 등이 있으며 성장을 억제하는 것에는 엠—1 마레인산 히드라찌드가 있다.

례하면 자극제 기베렐린은 사람들이 못쓸 것이라고 뽑아 버리는 황새'병에 걸린 벼포기에서 만들어 낸 것인데 이 자극제는 황새'병에 걸린 벼포기가 키가 잘 자라는 특성을 리용한 것이다. 기베렐린은 배추, 시금치, 담배, 아마, 대마 등의 생장을 촉진시키고 섬유의 질을 더 좋게 한다. 또한 오이, 참외, 수박, 도마도 등을 빨리 자라게 하고 열매를 크게 하여 줄 뿐만 아니라 씨를 없애는 유익한 작용도 논다.

또한 알화 나후질 초산은 감자 싹이 40 일만에 나는 것을 단 10 일만에 싹트게 함으로써 1 년에 두번 이상의 수확을 거둘 수 있는 가능성을 준다. 앞으로 자극제는 벼, 옥수수, 밀 등에 광범히 리용되여 그 성장의 기한을 단축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자극제는 식물을 왜 이렇게 빨리 자래울 수 있는가? 자극제는 농작물이 비료와 수분을 흡수하는 능력을 높인다. 따라서 세포의 성장을 촉진시키게 되며 그것을 더 빨리 더욱 크게 자래우는 것이다.

앞으로 농작물 자극제는 우리의 과학 기술자들과 청년들의 창조적 노력에 의하여 그 종류가 더 많아질 것이며 더 훌륭한 것을 만들어 내게 될 것이다.



문 하 연

동해나 울산에 밤나무 그늘
경개도 좋지만 인심도 좋구요
큰 애기 마음은 열두 폭 치마
실 백자 없어서 전복삼일세
에헤에 에헤라
울산은 좋기도 하구려

지금 우리 나라에서 많이 불리워지고 있는 민요 가운데는 이 《울산 타령》이라든가 《노들강변》, 《신넝변가》, 《능수버들》과 같은 맑고 가벼운 노래들이 있는데 이런 노래들을 일반적으로 신민요 (새로운 민요라는뜻)라고 부른다.

그것은 이러한 민요들이 30년 대를 중심으로 우리 나라에 널리 전파된 노래들로서 일반 민요와 다른 특징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와 같은 신민요들에는 어떤 특징들이 있는가?

그 특징의 하나로서는 이 민요들이 일정한 작곡가들에 의하여 창작되였다는 그 사실이다. 보통 인민 창작으로서의 민요는 인민들이 자기들의 로동과 생활에서 느낀 체험과 감격을 즉흥적으로 노래하는 과정에서 창작된 것이였는바 그것이 한 세대로부터 다른 세대에로 전하여지면서 더욱 아름답게 다듬어졌었다. 때문에 이런 민요들은 그 창작자가 알려지지 않는 것이 보통 일로 되고 있다.

그런데 앞에서 렬거한 민요들은 이와는 달리 일정한 창작자들을 가지고 있다. 즉 《울산 타령》은 인민 예술가 리 면상의 작품이며, 《신녕변가》는 리기영, 《노들강변》은 문 호월, 《조선 팔경가》는 형 석기가 창작하였다.

이 작곡가들은 30년 대 초에 이와 같은 민요풍의 가요들을 주로 창작하던 사람들이다. 그러면 이와 같은 신민요들은 어찌하여 나오게 되였는가? 이 노래들이 창작되던 1930년대 초는 일본 제국주의가 우리 나라를 다리로 하여 대륙을 침략하는 길에 들어 선 시기로서 이에 따라 놈들의 조선 인민들에 대한 식민지 착취와 압박이 일층 강화되고 우리 나라의 우수한 민족 문화에 대한 말살 정책이 극심해지는 시기이다.

당시 놈들은 우리 인민과 청년들의 민족 의식과 계급 의식을 말살시키고 그들을 타락의 길에로 이끌어 가기 위하여 광분하였다.

일제는 조선 말 가사로 된 일체 노래까도 금지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형편에서 당시 우리 나라에는 우리 인민들의 진실한 예술적 지향을 대변한 혁명 가요들을 비롯하여 진보적인 성격을 띤 가요들이 많이 창작되기 시작하였다.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신민요 역시 이와 같은 환경에서 민족 음악 문화를 지극히 아끼고 사랑하는 인민들의 지향에 호응하여 나타난 새로운 민요였던 것이다. 이 민요들은 그 당시 미국식 쟈즈적 영향을 가진 퇴폐적인 음악과 《군가》들에 맞섰으며 인민들 속에서 지극한 사랑을 받았다. 여기에 《조선 팔경가》의 한 절을 소개해 보자!

에-금강산 일만 이천 봉마다 기암이요
백두산 높아 높아 창공에 솟았고나
에헤라 좋구나 좋다 지화자 좋구나 좋다
명승의 이 강산아 자랑이로구나.

에-총석정 이침경은 못보면 한이되고
동해의 푸른 물은 볼 수록 유정하다.

무엇보다도 이 노래들에는 풍부한 인민성이 담겨져 있다. 그것은 우선 이 노래들이 예로부터 전해 오는 민요에 기초하여 그것을 새로운 시대의 문화적 취미에 알맞게 발전시킨 사실로서 설명된다.

일반적으로 우리의 민요들은 인민들의 진실한 사상 감정이 풍만하게 담겨져 있으며 그 형식이 아름답고 쉬우며 마음에 들게 만들어져 있기때문에 인민들의 깊은 사랑을 받았다.

바로 우리 민요가 가지는 이와 같은 특징들을 포착하여 창작 발전시킨 것이 이상에서 례거한 신민요들인 것이다. 이 신민요의 작곡가들은 우리 나라의 고유한 민족 문화의 전통에 굳건히 립각하면서도 그를 한층 더 발전시키려는 진지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생활력이 풍부한 민요들을 창작할 수 있었던 것이다.

오늘 날 우리가 즐겨 부르는 《울산 타령》은 《밀양 아리랑》에서, 《노들강변》 은 《방아 타령》에서, 《녕변가》는 《창부 타령》에서, 《능수 버들》은 《이팔 청춘가》의 리듬에 기초한 것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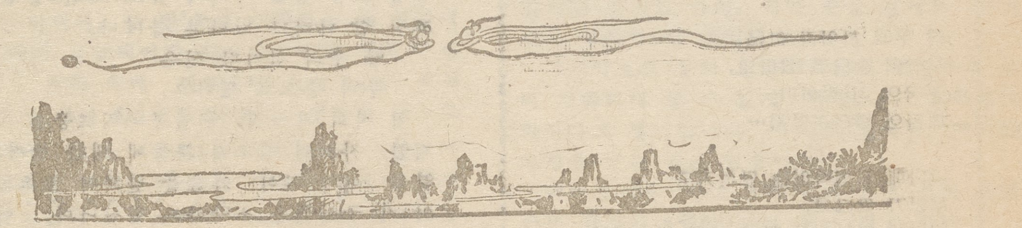
그러나 이 노래의 창작자들은 그것을 오직 원형 대로 모방한 것이 아니라 진지한 탐구 정신으로 종래의 민요들에 의거하면서도 그것을 벗어나서 전혀 새로운 민요를 창작하였던 것이다.

신민요는 아주 락천적이며 가볍고 쉬우며 맑은 성격을 가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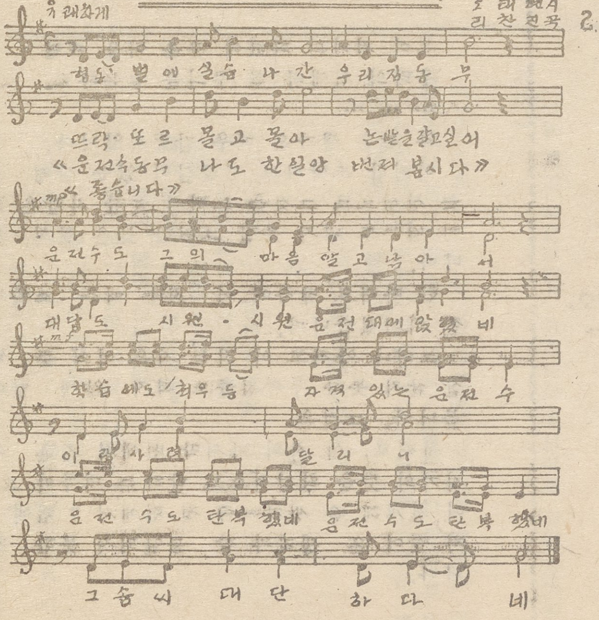
이러한 인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성격은 드디여 그 가요들로 하여금 고전적 가치를 가진 민요로 되게 하였다. 민요라 할 때는 그것이 널리 인민들 속에 전파된다는 것이 큰 조건으로 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가 만든 모든 민요가 다 민요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널리 인민들의 사랑을 받는 그런 좋은 노래만이 민요로 될 수 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청년 써클원들도 이와 같은 민요들을 얼마든지 창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에서 례거한 작곡가들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창작의 첫 길에 들어선 작곡가들이며 오늘 우리 써클 창작가들과 같은 수준에서 창작하던 사람들이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은 누구나 없이 이와 같은 창작 경험을 본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모두다 만능일세



2. 농판에서 흥겨웁던 우리 김 동무
노들강변 한곡조를 멋지게 타고 싶어
《나도 한 곡조 타 볼까요》
《그거야 어렵겠소》
풍금수도 그의 솜씨 알고 남아서
대답도 시원 시원 손풍금을 맡겼네
학습에도 최우등 자격있는 손풍금수
언제부터 배웠는가
손풍금수 탄복했네 손풍금수 탄복했네
그솜씨 대단하다네



독자 평가

좋은 점과 부족점

독자문예

직포공의 념원

박 송 만

땅 우에 천이란 천은
우리의 손으로 짰다오,
조국의 기'발이며
애들의 넥타이마저…

바다에서 펄럭이는 만선기도
우리가 짰다오,
배마다 만선기를 달고 오길 바란다오,
탐사대의 천막도
우리가 짰다오,
새 광맥들이 숫하게
나지길 바란다오.
애들의 포대기도
우리가 짰다오.
새 생명 태여나길 바란다오.
필필에 새겨 넣는다오,
우리 마음, 우리 행복을…
천리마 시대의 나래치는 기상을,
사시 장철 아름다운 금수 강산을…

봄이 거리의 화단에 꽃을 피울때면
우리도 천에다 꽃무늬를 놓는다오.
여름날 바다가
도시의 모래불로 밀려 올때면 생각한다오,
우리가 짠 비단 물'결보다 부드럽기를…

평생 짜낼 천을 모두 합치면
가을날의 청청한 하늘보다 넓기를…
우리가 짠 천으로 겨울 옷을 지으면
옷이 해처럼 추위를 막을 것을…

그렇다 원한다. 이 한 해에
2억 5천만 메터를 짜고야 말 것을…
사람들에 대한 이내 정성도
조국에 대한 사랑도
가지 가지 많고 많은 이 내 념원도
오직 2억 5천만 메터에 수 놓을 것을…

박 산 운

—시 《직포공의 념원》을 읽고—

시 《직포공의 념원》에는 지은 이가 자기의 일상 로동 생활 속에서 몸소 느낀 생각이 비교적 잘 나타나 있다고 봅니다.

땅 우의 천이란 천은
우리 손으로 짰다오.

이 시의 서정적 주인공—직포공은 자기의 직업, 자기의 창조적 로동에 대한 궁지와 희열을 이와 같이 가슴을 펼치며 호소합니다. 이 시 구절들은 소박하고 힘찹니다. 이 시에서는 《땅 우의 천이란 천》들— 조국의 기'발로부터 시작하여 소년들의 넥타이, 만선기며 탐사대의 천막 등등이 직포공의 눈, 직포공의 마음을 통해 비쳐집니다.

더욱이 4 련에서 토로된바

봄이 거리의 화단에 꽃을 피울 때면
우리의 천에다 꽃 무늬를 놓는다오.
… … …

와 같은 생각은 매우 감동적입니다.

이러한 소박하고 진실감이 있는 감정 묘사는 진정으로 그것을 느끼지 못한 사람은 도저히 념두도 내지 못할 그러한 높은 질의 것입니다.

한 마디로 말하여 이 시는 매우 소박하게 잘 씌여졌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시는 지은 이의 뜻 대로 잘 살지 못한 부족점들도 적지 않게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첫째로, 이 시의 마지막 련에서 지은 이가 자기의 뜻을 확정적으로 말하는 대목이 그 전에 전개해 온 생각—즉 첫 련에서 5 련에 걸쳐 끌어 온 생각과 잘 통일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다 원한다 이 한 해에
2억 5천만 메터를 짜고야 말 것을…
… … …
가지 가지 많고 많은 이 내 념원도
오직 2억 5천만 메터에 수 놓을 것을…

이 련은 지은 이가 정작 말하려는 뜻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련에서는 시의 전반부에서 보여 주던 그러한 진실감이 부족합니다.

그 리유는 어디에 있을가요?

이 시는 처음부터 시작하기를 자기의 소원—직포공의 념원에 대해 여러 각도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들은 구체적인 생활 정경 더 나아가서 생활적인 바탕을 약하게 드디고 서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어느 모에 가서—이 시의 경우에는 마감에 가서—구체적인 생활 바탕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즉 자기가 기대를 다루며 직접 손 바닥에, 두 팔'둑에 감촉하는 그 실감이 독자에게 전달되여야 합니다. 만약 이렇게 생활적인 정황 속에 직포공이 서서 느낄 때는 이 시와 같이 《념원한다》는 그 생각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념원》을 성취하고야 말, 아니 그것을 성취하고 있는 사람의 생각이 펼쳐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념원을 이룩하고 있는 주인공의 새로운 경험, 새로운 환희가 기필코 발견될 것이며 그것이 바로 독자들의 가슴을 흔들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매개 련과 련들과의 관계 및 각 련들에도 부족점이 있습니다.

첫 련에서— 《땅 우의 천이란 천은 우리 손으로 짰다오》로 시작했다가 《조국의 기'발이며 애들의 넥타이마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 련에 가서 또 만선기며 천막 등등을 제시해 갑니다. 이 마저가 얼마나 정확하지 않는 말인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둘째 련에서 만선기며 천막, 아기들의 포대기 등에 대해서는 주인공 — 직포공의 념원이 이야기되는데 첫 련에서는 다만 기'발과 넥타이마저로 끝나고 있습니다.

또한 4 련과 5 련 사이를 떼고 있는데 여기에는 아무런 비약도 또 감정의 매듭도 없이 련들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매개 련은 반드시 일정한 감정의 기복, 비약 등을 전제로 해서 갈라 놓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말을 더 깊이 연구하고 보다 정확하게 쓸 수 있게 백방으로 노력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말에서 어색한 느낌을 주는 데가 있습니다.

례하면 《바란다오.》로 끝고 오던 시의 분위기를 갑자기 《원한다》로 끝난 것등 입니다.

또 여러 련들에서 자주 보는 전도법인데 이렇게 너무 많이 쓰고 보면 우리 말의 순탄한 어'법에 손상을 줄 수 있으니 그런 점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독서는 인간에게 있어서 첫째 가는 아름다운 일』

『참다운 학문이란 나라를 잘 다스리고 인민을 편안하게 하며 외적을 물리치고 국가 재정을 넉넉히 하며 문무에 능통하여 무엇이나 담당하지 못하는 것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문장과 글귀를 찾아 내거나 글자에 대한 주석이나 하고 절하는 절차를 익히는 것만으로 어찌 학문이라 할 수 있겠는가.』

『학문이란 도를 알고 자기를 인식하며 실천하는 데 힘 쓰자는 것이다.』

『사고하고 배우지 않는 것과 배우고 사고하지 않는 것은 그 폐가 같다.』

『나는 조선 사람이다. 그러므로 조선적인 시를 짓기를 즐긴다.』

『一년 三六〇일이 모두다 우리들이 학문을 닦으며 국가 사업에서나 개인적인 일에서나 자기 할바를 다 해야 할 날이다. 다시 말하면 三六〇일이 다 어느 날 할 것 없이 좋은 날이며 다 중요한 날이다.』

(정 다산 작품 선집에서)

☆ ☆

『시 짓는데 가장 어려운 것은 말과 뜻의 통일된 아름다움, 뜻이 깊으면 깊을 수록 씹는 맛이란 보다 훌륭하다. 뜻은 깊되, 말이 되잖으면 퇴고 퇴어서 그 뜻이 못 서나니라…』

리 규보의 『시를 론함』에서

※ 리규보(一一六八년~一二四一년)는 고려 시기에 활동한 걸출한 작가이다.

독자문예

물수레

함북도 유선군 송학리
김 환 철



나는 좋더라.
조합일 끝내고 돌아 올제
설레이는 옥수수잎 만져가며
물수레 빙글빙글 돌아치는
방아'간의 새소식 듣는 것도

가난이 덮치던 너 설음 방아야
생각나라 이런 저녁이면,
썩은 감자 가루 몇줌 넣고
하늘만 쳐다보고 한숨 짓든
산'골 녀인의 피'기 없던 모습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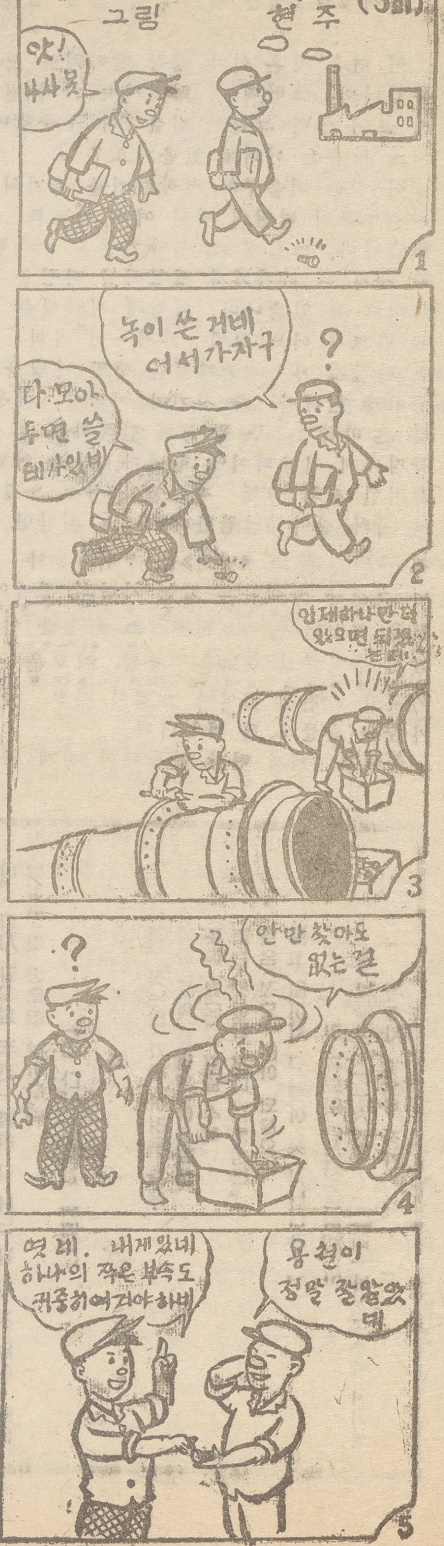
그렇구나. 예와 다름 없는 그 물이,
그 물이 오늘은 행복을 담아 빛내고
할일 많아 바삐 서두누나.
물수레 한 번 돌아치면
재'하얀 옥백미 쏟아지고
또 한번 스르럭 돌면
물고 도는 톱날이 집재목 켠다네.

물수레 피대'줄 한번 돌리면
가축들의 넉넉한 사료가,
회령'집의 창문에 전등'불이
밝게, 밝게 비친다네.

장하고나 너 수레야.
이 고장 사람들의 노래싣고
기쁨을 싣고,
돌고 돌아라. 새 세대에 전할 이야기를 싣고.

용철이의 만화수첩 (3회)

그림 현주





아직 기차나 자동차 등 현대적인 문명한 운수 수단들을 꿈에도 상상할 수 없던 먼 옛날에 도보로 10만 리 이상의 대려행을 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닌가?

그러나 우리 나라의 신라 사람 혜초는 8 세기의 전반기에 벌써 그런 려행을 하였다.

그는 승려로써 젊었을 때에 당나라에 류학하다가 남방 해로를 거쳐 인도로 들어갔다. (당시 인도를 천축국(天笠國)이라 불렀다.) 그의 려정은 실로 먼 길이였다.

그는 인도 서북 지방인 카스미르, 도까라를 거치여 오늘의 페루샤, 아랍 제국을 다녀서 중 소 아세아를 동으로 횡단하여 총령(葱嶺)을 넘어서 당나라의 안서 도호부(安西都護府)인 구자까지 이르렀다. 거기서 다시 남으로 내려가 서장(西藏) 지방을 통과하여 장안(長安)으로 돌아 왔다.

8 세기에 있어서 혜초의 이러한 대려행은 혜초 한 개인의 공적일 뿐 아니라 당시 조선 인민 전체의 과학적 탐구와 영웅적 기상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이렇게 10 여 만 리의 먼 길을 려행한 혜초는 자기의 견문을 서술한 《왕오천축국전》 3 권을 내 놓았는바 이는 세계적인 대 려행기였다.

저자는 이 책에서 인도 지방의 대부분이 매우 덥고 수목이 우거지고 여러가지 뱀과 맹수가 많다는 것과 아울러 많은 사람들이 가난하게 살고 있다는데 항상 관심을 돌리였다. 그러나 왕은 화려하게 살며 코끼리를 수백 마리씩 소유하고 있다고 하였다. 특히 저자는 중인도 지방에서는 사람을 가두거나 고문하는 일이 없으며 또 서인도에서는 려행자가 량식을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으며 비록 왕과 수령이라도 백성의 재물을 빼앗지 않는다는 사실을 찬양하였다.

중인도에서는 왕이 백성들에게 부역을 시키지 않으며 다만 세금을 받을 뿐인데 세금은 왕이 직접 날라 간다고 매우 감탄하였다. 또 백성들은 왕에게 직접 소송을 제기하여 백성들이 왕의 주위에서 떠들어도 왕이 노하지 않고 천천히 시비 곡절을 가려 준다고 하였다. 저자는 처음으로 부딪치는 이역의 풍습에 대하여 경이를 느끼면서 이 모든 사실과 현상들을 자기의 인도주의적 립장에서 평가하였다.

반면에 아랍 동쪽의 호국(胡國)에서는 어머니와 누이를 안해로 삼으며 형제 3 명 내지 10 명이 한 안해를 공유하는 사실에 대하여 극악한 풍속이라고 분개하였다.

혜초는 조국을 멀리 떨어진 외국을 려행하면서 이르는 곳마다에서 조국을 사모하는 감정을 자기 려행기 여러 곳에서 표현하였다. 그 중 한 구절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달도 밝다 남쪽 하늘에
구름은 뭉게뭉게 떠서 가는데
가는 편에 소식 한 장 보낸다 해도 대답은 받아 볼 길 바이 없으리

고국은 북쪽 하늘 아득하거늘
이 몸은 딴 나라 서쪽 끝에 있구나
남쪽이라 여기는 기러기도 없거니
외로운 내 소식을 뉘가 전해 주리오.

《당신들은 우리의 심장에 붉은 씨앗을 심어 놓았다》

—제 8 차 세계 청년 학생 축전에 참가하여—

김 봉 일

전 세계 청년 학생들의 이목이 집중된 제 8 차 세계 청년 학생 축전은 거대한 성과를 거두고 페막되였다.

축전은 분란의 수도 헬싱키에서 7월 29일부터 8월 6일까지 137 개국에서 1,500 개 청년 학생 단체를 대표한 1만 8,000 여 명의 참가하에 진행되였다.

축전에서는 6만 군중이 참가한 개막식, 3만이 참가한 식민지 및 신생 독립 국가 청년들과 단결의 날 행사, 10만이 참가한 페막식 등 대규모적인 행사와 각종 토론회, 대표단 간의 상봉, 다채로운 예술 공연, 체육 경기 등이 진행되였다.

이 모든 부문의 일에 대하여 이 짧은 글에 다 쓸 수는 없다. 다만 조선 대표단의 활동과 관련한 몇 가지만 쓸려고 한다.

《어둠을 밝혀 주는 예술》

조선 청년 학생 대표단은 금번 축전에 참가한 대표들 중 제일 먼저 헬싱키에 도착하였으며 또 제일 먼저 공연을 하였다.

우리 대표단의 첫 공연은 바로 7월 26일에 헬싱키에서 가장 크고 현대적 설비가 갖추어진 문화 회관에서 진행되였다. 우리 예술단의 첫 공연 소식과 조선 예술에 대한 소개는 이미 진보적 분란 신문들을 통하여 널리 소개되여 있었다.

때문에 우리 공연은 헬싱키 시민들의 관심사의 하나였다. 개막한지 두 시간 전부터 회관 앞은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관객석은 1,600 명 밖에 되지 않는데 2,000 여 명으로 꽉 들어 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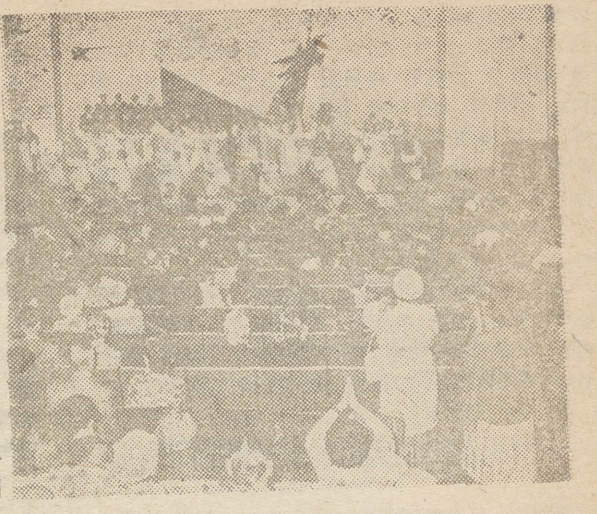
경찰들도 군중들이 밀고 들어 오는 바람에 어찌지 못했다. 그리고도 600 여 명의 관중들은 돌아 가지 않을 수 없었다.

공연은 첫 합창부터 박수 갈채와 절찬 속에 진행되였다. 분란 노래를 분란 말로 합창하자 장내는 일시에 요란한 박수가 일어나고 군중들은 자기도 모르게 전부 총 기립하였다. 나는 여기서 우리 예술에 대하여 분란 청년들과 외국의 벗들이 어떻게 절찬하였는가에 대하여 소개하겠다. 이날 공연을 본 분란의 영화 평론가 마르티싸보는 《나는 평론가로써 예술을 보고 찬양할 수도 있고 비판할 수도 있다. 그러나 조선 예술에 한해서는 비판이란 말조차 할 수 없으며 찬양하자니 나의 지식이 너무 부족하다. 조선 예술은 손에 땀을 쥐고 가슴을 조이며 웃으면서도 감격적인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볼 수 없는 예술》이라고 하면서 자기의 소감을 더 이야기 못 했다. 이날 공연을 본 이보빈호 싸무스 할머니는 공연의 첫 순간부터 울었다. 《지구의 어느 모퉁이에 이런 훌륭한 예술이 있었는가 모든 종목이 신기하고 가슴을 친다. 어떻게 흥분 없이 볼 수 있겠는가. 나는 오늘처럼 감격한 일은 일생에서 처음이다.》라고 하면서 공연 끝에 우리 손을 붙잡고 놓지 않으면서 《이런 훌륭한 예술단을 보내 준 당신네 조국에, 조선 인민의 수령이신 김 일성 수상님께 분란의 한 로파의 인사를 전해 달라.》고 몇 번이고 외우는 것이였다.

덴마크의 한 조선소에서 일하는 웨넨텔은 우리 예술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조선 예술을 오늘 처음 보았는데 이와 같은 훌륭한 예술을 보게 된 것은 나의 일생에서 가장 큰 자랑이 아닐 수 없다. 우리 나라에는 지금 쟈즈가 성황하고 있으나 쟈즈 음악은 하등의 예술적 가치가 없다. 나는 조선 예술단의 공연을 보고 예술의 진가를 알았으며 예술이 어떻게 발전하여야 하는가를 깨달았다.

조선 예술은 어둠을 밝혀 주는 홰'불과 같은 예술이다.》



조선 예술단의 첫 공연—이것은 헬싱키 시민들의 큰 화제'거리로 되였다. 누구나 만나면 조선 예술을 이야기하게 되였고 또 헬싱키에 도착하는 외국 대표들이 도착하여 처음으로 들은 소식도 조선 예술에 대한 소문이였다. 많은 외국 대표들이 조선 예술을 보여 달라고 간청하는 것이였다.

《조선은 예술의 나라》, 《조선 예술은 세계 최고봉의 예술》, 《어둠을 밝혀 주는 홰'불과 같은 조선 예술》 등의 찬양의 목소리는 순식 간에 헬싱키 시내와 전 분란에 퍼졌으며 우리의 예술 공연 장소는 초만원을 이루었던 것이다.

우리의 첫 공연은 축전을 지지하는 사람은 물론 축전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영향을 주었으며 축전의 성과적 진행에 거대한 기여를 하였다.

붉은 딸기

8월 10일 저녁 분란의 한 가정 세 식구가 우리 대표단 숙소를 찾아 왔다. 그들은 헬싱키 시내 끼르씨까떼예 4구역에 사는 석공 로동자였다. 아버지는 에이노고 어머니는 게루뚜고, 딸은 밀두요라고 부른다고 자기들을 소개한 다음 조선 예술 공연의 프로그람 책에서 녀성 중창조 사진을 보이면서 이들을 만나게 해달라는 것이였다.

이윽고 그들이 오자 그들은 기쁨을 억제하지 못하고 얼싸 안으면서 딸기 바구니를 내미는 것이였다.

《우리는 조선 예술단이 부르는 분란 민요 <딸기의 노래>를 듣고 몹시 감동되였다. 우리는 당신들을 방문하기 위해 여러 차례 토의했다. 그러나 로동자의 가정인 우리에게는 아무 것도 없다. 때문에 우리 집 정원에 가꾼 딸기를 선물하기로 했다. 그런데 딸기가 당신들이 떠나기 전에 다 익지 못할가봐 몹시 안타까왔다. 그런데 다행이도 당신들이 떠나기 전에 이 딸기를 가져 올 수 있게 되였으니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 한 분란 로동자 가정의 성의로 생각하고 이 딸기를 받아 달라, 오늘 저녁 꼭 <딸기의 노래>를 부른 분들이 한 자리에 모여 앉아 이 딸기를 잡수셔 주면 우리에게 있어 그 이상 기쁜 일이 없겠다》고 하면서 딸기 바구니를 안겨 주는 것이였다.

그들은 다시금 우리 예술인들을 껴안고 《당신들은 우리의 심장에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붉은 씨앗을 심어 놓고 갑니다.》라고 하면서 눈'시울을 닦는 것이였다.

이것은 조선 대표단과 분란 인민들 간에 맺어진 친선의 극히 짧은 한 실례에 불과하다. 축전 기간 수 많은 분란 인민들이 우리 숙소를 찾아 오거나 편지를 가져 왔다.

8월 2일에는 헬싱키에서 60 키로 메터나 떨어진 철도 공장에서 일하는 후신캐라는 청년이 구리로 만든 큰 국자를 가지고 찾아 왔다.

그것은 손으로 만들어 대단히 거칠어 보였다. 그러나 그것을 만들기 위해 얼마나 고심했는가가 보는 첫눈에 알리였다.

그는 《나는 조선 대표가 왔다는 소식, 그리고 예술단 공연 소식도 들었다. 그러나 나에게는 아무 선물도 없다. 이것은 내 성의껏 내 손으로 만든 것이니 받아 달라, 그리고 분란 로동 계급의 인사를 영웅적 조선 로동 계급에게 전해 달라.》고 하는 것이였다.

실로 분란 인민들은 조선 사람들을 금번 처음 보는 것이였다. 그러나 그들과의 우리 사이에는 짧은 기간에 깊은 정이 들었다.

헬싱키의 로동자 오이바 밸리매게는 조선 대표단 숙소 경비를 자기에게 맡겨 달라고 하면서 그는 우리가 헬싱키에 있는 기간 거의 잠을 자지 않고 우리 신변의 안전을 위해 노력했다. 또 그의 안해는 우리가 식사하는 식당에서 복무했고 그의 아들은 자진하여 우리의 안내 사업을 도왔다.

우리가 식사한 문화 회관 식당에서는 축전

기간 1,500 명의 각국 대표들이 식사했다. 그런데 이 식당 어머니들은 우리 대표단들의 식사를 위해서 각별한 배려를 돌렸던 것이다. 우리가 식사를 잘 하지 않으면 몸이 편치 않은가, 무슨 음식이 입에 맞는가 하면서 우리에게 될수록 더 맛 좋은 식사를 해주자고 힘썼으며 우리가 식사를 잘하면 아주 만족한 웃음을 띠우면서 《끼—또스》(감사하다는 분란 말)하고 인사하는 것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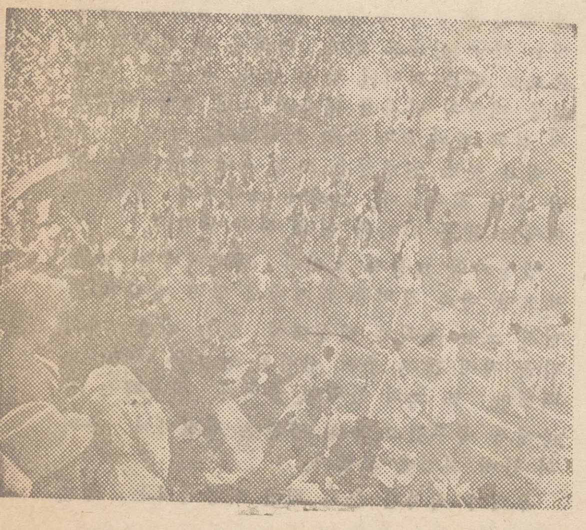
우리가 거리에 나가면 헬싱키 인민들은 곧 알아 보고 손을 흔들며 인사하는 것이였다. 이렇게 우리는 축전 기간 헬싱키 인민의 따뜻한 사랑과 성의 있는 방조 하에서 생활하였다.

진리는 언제나 승리한다

미제를 위시한 제국주의자들은 윈나 축전 때보다 더 악랄하게 금번 축전을 파괴할려고 달라 붙었다. 그들은 수 많은 간첩, 암해 분자, 불량배들을 헬싱키에 파견하여 음흉한 책동을 감행하였으며 각종 행사들에 참가하여 혼란을 조성할려고 날뛰였다. 수 많은 사실 가운데서 대학생 쎄미나르에서 있은 사실 하나를 여기에 쓰기로 하겠다.

대학생 쎄미나르에서 우리 나라 학생 대표 강 태구 동무 (김 일성 종합 대학 학생)는《중등 교육의 민주주의적 개혁은 고등 교육 발전의 기초》라는 제목에 대하여 토론하였다.

강 태구 동무는 공화국 북반부에서 우리 당의 교육 정책에 의하여 이룩된 성과와 학생들의 행복한 생활에 대하여 지적하고 남반부 학생들의 비참한 생활을 이야기하는 동시에 그



원인은 미제의 강점에 있다는 것을 구체적 사실을 들어 론증하였다.

우리 대표의 토론은 박수 갈채로 하여 여러 번 중단되였다. 우리 대표의 토론이 얼마나 감동을 주었던지 튜니샤 대표는 우리를 찾아 와 당신들의 토론은 나를 흥분시켰고 대단히 만족하다. 그 원고를 꼭 우리 학생들에게 소개해야 되겠는데 원고를 줄 수 없는가고 하면서 간청하는 것이였다.

이렇게 우리 대표의 토론은 전체 참가자들의 절대한 지지를 받았다.

반면에 미국 대표에게는 심대한 타격이 아닐 수 없었다. 미국 대표 돈 잉크래스란자는 집행부의 동의도 없이 무례하게 일어나 우리 대표의 토론에 대하여 도발해 나왔다.

장내는 일시에 긴장되였다. 특히 미국 대표의 도발은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학생 대표들의 격분을 자아냈다.

서 아프리카 대표는 《조선, 큐바, 혁명은 교육의 민주화를 위한 훌륭한 모범이다.》라고 하면서 아프리카에서 미제의 죄행을 규탄하고 우리 대표의 토론을 지지했다.

푸에르 토리코 대표는《우리는 조선 전쟁 시기부터 이미 영웅적 조선 인민과 학생들의 편에 확고히 서서 싸웠으며 또 싸우고 있다. 우리는 앞으로도 미제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조선 학생들과 손을 굳게 잡고 나갈 것이다.》라고 하면서 《미제 침략자들은 남조선에서 당장 물러 가라》고 소리 높이 웨쳤다. 그러자 장내는 이에 호응하여 《미제를 타도하라》는 고함 소리와 함께 발을 구르며 박수를 치는 소리가 오래 계속되였다. 미국 대표 잉크래스란 자는 얼굴도 못 들고 낯색이 파래지더니 더 참지 못하고 사죄서를 써서 제출하였다.

《조선에 대한 인식의 부족으로부터 나는 조선 대표단과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에 대하여 부당한 행동을 하였습니다. 나는 나의 행동에 대하여 조선 대표에게 사죄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미국 대표는 드디여 우리 대표와 전체 회의 참가자들께 머리를 숙이지 않을 수 없었다.

미제 앞잡이들의 이러한 도발 행동들은 가는 곳마다에서 이렇게 통쾌하게 파산되고 말았다.

우리는 축전을 통하여 공화국의 아들딸이 된 긍지와 자부심, 현명한 수령을 모신 행복과 영예를 더 한층 뜨거이 느끼였다.

체육 지식

조약하는 힘을 키우려면

체육에서는 어떤 종목이나를 막론하고 거의나 다 조약력 (뛰는 힘)이 리용된다. 따라서 조약력을 키우는 문제는 체육 기술을 발전시키는데 결정적인 의의를 가진다.

조약력이라는 것은 사람의 몸을 공간에 높이 뛰여 오르게 하는 힘인데 이 힘의 크기는 주로 다리를 굽혔다 펴는 순간의 속도와 다리의 힘에 관계된다. 즉 다리의 관절을 굽혔다 펴는 속도가 빠를 수록 뛰는 힘은 커지며 다리 근룩이 탄력있고 힘이 있을 수록 더 높이 뛴다.

그러므로 조약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속도와 다리 힘을 키워야 하며 오래'동안 조약할 수 있는 인내성을 키우는 훈련들을 해야 한다. 특히 다리 근륙의 탄력을 키우는데 주목하여야 한다.

그러면 조약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떤 운동 (훈련) 을 하는 것이 좋은가?

여기에는 중량물을 가지고 하는 운동, 장애물들을 놓고 하는 운동, 자체 중량을 극복하는 운동 등 여러가지가 있는데 현재 우리 나라에서 주로 많이 리용되고 있는 수단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중량물을 가지고 하는 운동에는

○. 구환 또는 빠벨 (체육 기재의 일종) 을 메고 굽혀 펴기와 련속 조약을 하는 운동.

○. 가벼운 중량물을 메고 조약하며 달려 나가기.

○. 의자에 량 발을 딛고 허리를 량 손에 잡고 앉었다 일어 서며 조약하는 운동.

○. 중량물을 메고 외발 펴기 운동.

2. 장애물을 놓고 하는 운동 에는

○. 야외의 장애물 (물 도랑, 개천, 담장 등) 뛰여 넘기,

○. 높은 곳에 있는 물체를 뛰여서 손 또는 머리로 다치기.

○. 량 발로 계단을 련속 뛰여 오르기와 한 계단을 한 발로 뛰여 오르 내리기.

○. 한 다리를 높은데 올려 놓고 자체 중량을 극복하면서 몸을 우로 밀어 올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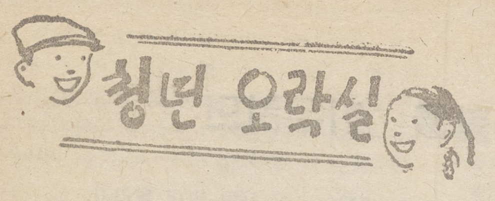
3. 자체 중량을 극복 하는운동.

○, 줄 운동, 제자리 넓이 뛰기, 제자리 높이 뛰기, 제자리 3단 뛰기와 짧게 달리면서 진행하는 각이한 조약 운동들,(주강도 3단)

우에서는 조약하는 힘을 키우는 운동을 주로 이야기하였지만 이 외에도 속도를 발전시키기 위한 《빨리 달리기》및 달리다가 순간 조약하는 운동, 그리고 각종 구기 운동, 체조들을 다양하게 배합하여 진행함으로써 육체를 전면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상의 훈련을 진행함에 있어서 힘이 부족될 때까지 몇 번 계속 반복해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여러 가지 조약 운동을 엇바꾸어서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김 병 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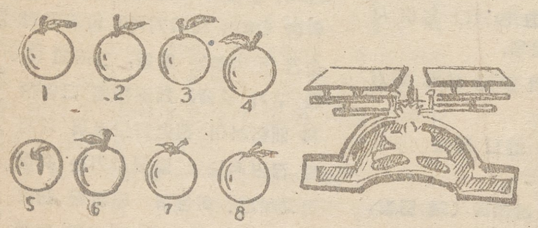




(현) (상) (문) (제)

그림에 있는 바와 같이 사과가 8 개 있다. 그런데 7 개의 사과는 그 무게가 동일한데 다만 1 개의 사과만이 무게가 다르다.

동무들! 다음의 저울 대를 두 번만 사용하고 그중 가벼운 사과를 골라 내라!



다음의 수'자들을 그림에 표시된 빈 란에 넣어(가로, 세로) 합이 55가 되게 하라!
1, 2, 3, 4, 5, 6, 7, 8, 9, 10.
(∴ 한줄에 같은 수'자를 반복 기입하지 말아야 한다.)

제출자, 평북도 피현군 성동리 목장 **차 봉남**

1	2	3	4	5	6	7	8	9	10	55
										55
										55
										55
										55
										55
										55
										55
										55
										55
55	55	55	55	55	55	55	55	55	55	합계

속담

○ 고기보고 기뻐만 말고 가서 그물을 뜨라

욕망은 그것을 달성할 준비와 노력으로써만 충족됨을 알아야 한다는 말이다

○ 굴르는 돌은 이끼가 안낀다.

부단한 노력은 발전을 가져오며 침체는 퇴보를 초래한다는 교훈이다.

○ 만리 길도 한걸음으로 시작된다

아무 굉장한 큰 일도 그 시초가 중요하며 적은 것이 쌓이고 쌓여서 드디어는 놀랠만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말이다.

○ 소리 없는 버러지가 벽을 뚫는다.

말 없이 실천하는 사람의 무서운 힘을 이르는 말이다.

○ 주먹 구구에 박 터진다.

계획성 없는 일이 나중에 혼란을 일으킴을 말한다.

☆ 7호 현상 문제 해답

① 888+88+8+8+8=1,000

②

```
   415
   382
  ----
   830
 3320
1245
------
158530
```

☆ 수수께끼 해답

① 지식 ② 고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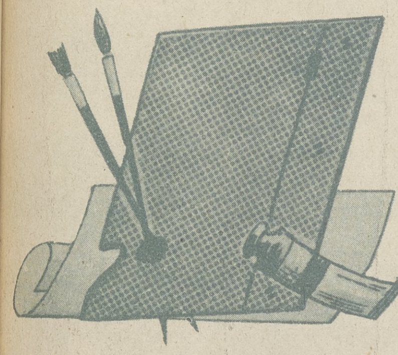
《청 년 생 활》
편 집 위 원 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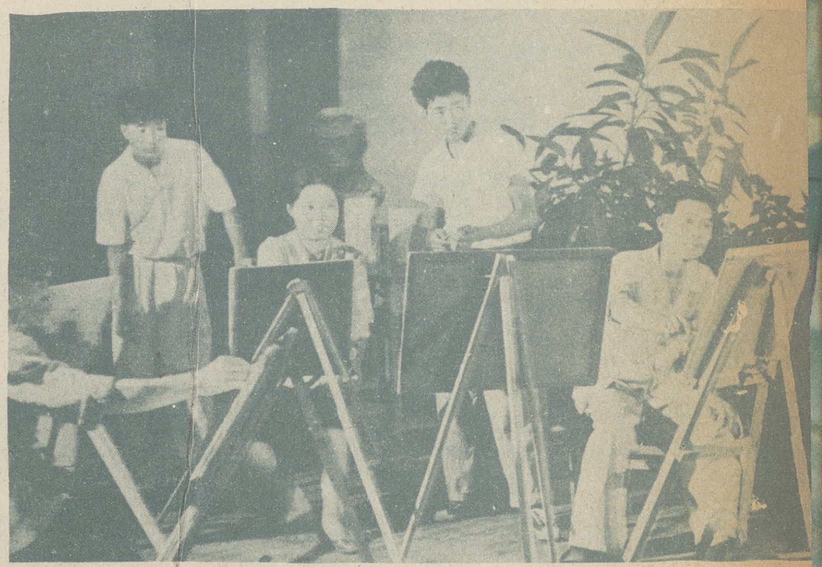
발행소 민 청 출 판 사. 주소 평양시 동대원 구역 문신동
인쇄소 동 평 양 인 쇄 공 장 전화 38—58. 83—85
1962년 8월 10일 인쇄. 1962년 8월 15일 발행. 7—230518

공장 미술 크루쏘크원들

—평양시 서문 청년 구락부에서—

촬영 김 창 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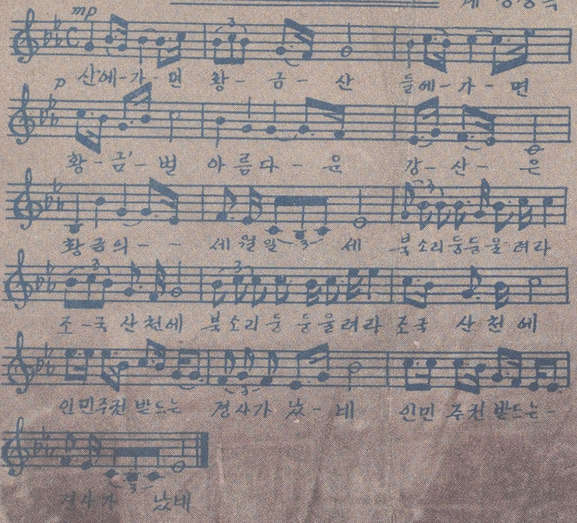
(우) 그날 일을 끝마치면 크루쏘크원들은 학습 계획에 따라 그림을 그린다.

(하) 그림을 그린 후에는 반드시 합평회를 진행 한다.



선거의 노래

전동우 시
계경상 곡



2. 천리마 나래 펼쳐
하늘높이 날으니
지상 락원 열리고
행복은 꽃피였네
‖: 당과 수령 두리에
뭉친 인민들 :‖
‖: 나가자 영광스런
선거장 으로 :‖

3. 삼천만 우리 인민
한 가정에 살아갈
통일의 아침 해가
동산에 솟아 온다
‖: 남녘의 형제 얼싸
안을 그날 위해 :‖
‖: 바치자 영예로운
이 한표를 :‖



청년들이여! 최고 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높은 정치적 열의와 로력적 성과로!